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53

(2020년 5월 12일 화요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5.12.

발행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발행인 김창보 · 최재필

홈페이지 www.seoulhealth.kr · www.scdc.or.kr

- 코로나19 국내 35명 추가 확진으로 총 10,909명, 서울시 신규 확진자 15명 발생으로 총 698명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86명(5.11.0시), 수도권 79명, 남성 78명, 20대가 58명으로 가장 많아
- 서울시 코로나19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관련 익명검사도 불사, 유사유흥업소 방역수칙 단속 강화
- 서울시민 코로나19 경각심 30~40대 가장 높아, 76.5% 서울시 대응 신뢰, 당면과제 1순위 경제 회복
- 서울시, 대중교통 6월 중 혼잡도 회복 예상,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 발표 "승객 분산·혼잡시 마스크 필수"
- 서울시민 '시 재난긴급생활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둘 다 받는다...11일 접수개시
- 이태원 관련 감염확산으로 등교수업 일정 조정, 고3 등교수업 당초 5.13.에서 5.20.로 1주 연기 등
- 중대본, 코로나19 지역사회 취약집단 시설 강화 위해 요양병원, 정신병원 진단검사 적용 확대
- 아동돌봄쿠폰 43.5% 지역소비, 동네마트, 음식점 등 타격입은 동네상권이 주요 소비처로 활력 불어 넣어
-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수 28만명 넘어, 절반 넘는 15만6095명 유럽대륙에서 나와
- 뉴욕, 코로나합병증 추정 '어린이 괴질' 85건 조사중, 호흡기 증상 없어 코로나19 연관성 미확인

1. 발생 현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판

	확진환자 현황			검사 현황 ⁴⁾			자가격리자 현황		
	확진자	사망자	격리해제	검사건수	검사중	결과음성	계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¹⁾	698	2	554	126,464	6,296	120,168	61,360	10,378	50,982
전 국 ²⁾	10,909	256	9,632	657,583	10,922	646,661	-	-	-
전세계 ³⁾	4,103,136	282,719	1,411,619	-	-	-	-	-	-

1)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5.12. 0시 기준

2) 전국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20.05.11. 00시 기준

3) 전 세계의 경우,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20.05.11. 15시 기준

4)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 실시 현황

- 서울시 신규 확진환자 15명(5.9.확진자 1명, 5.10. 확진자 4명, 5.11. 확진자 10명), 누적 확진환자는 총 698명
 - 입원(격리)환자 142명, 격리해제 554명 / 질병관리본부 공식발표 확진환자 수는 683명(미발표 15명)
 - 5월 11일 00시 기준, 우리나라 사망자는 총 256명으로 치명률은 2.35%이며, 서울시 사망자 2명

● 서울시 확진자 환자구성 (2020.5.12. 0시 기준)

※ 확진일자는 서울시 기준이며, 추후 조정될 수 있음

확진일자	계	이태원 클럽관련	해외 여행력 (외국인 포함)	확진자와의 접촉력		조사중	통계 미포함 (인천검역소)
				해외 여행자	기타 확진자		
5월 11일(월)	10	10	-	-	-	-	-
5월 10일(일)	20	20	-	-	-	-	-
5월 9일(토)	18	16	2	-	-	-	-
5월 8일(금)	13	13	-	-	-	-	-
5월 7일(목)	0	-	-	-	-	-	-
5월 6일(수)	0	-	-	-	-	-	-
5월 5일(화)	0	-	-	-	-	-	-
5월 4일(월)	0	-	-	-	-	-	-
5월 3일(일)	0	-	-	-	-	-	-
5월 2일(토)	2	-	2	-	-	-	-
5월 1일(금)	1	-	1	-	-	-	-
4월 30일(목)	1	-	1	-	-	-	-
4월 29일(수)	0	-	-	-	-	-	-
4월 28일(화)	0	-	-	-	-	-	-
4월 27일(월)	4	-	4	-	-	-	-
4월 26일(일)	0	-	-	-	-	-	-
4월 25일(토)	0	-	-	-	-	-	-
4월 24일(금)	1	-	1	-	-	-	-

● 서울시 주요 발생 원인별 현황 (2020.5.12. 0시 기준)

(단위: 명)

소계	해외접촉 관련	구로구 콜센터 관련	구로구 교회 관련	동대문구 관련 (교회,PC방)	동대문구 관련 (요양보호사)	은평성모병원 관련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종로구 관련	대구방문	신천지 관련	타시·도 확진자 접촉자	이태원 클럽 관련	기타
698	260	98	41	20	8	14	13	10	11	3	28	59	133

※ 역학조사서 기반 1차 분류된 것으로,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 가능, 기타는 산발 사례 또는 조사 중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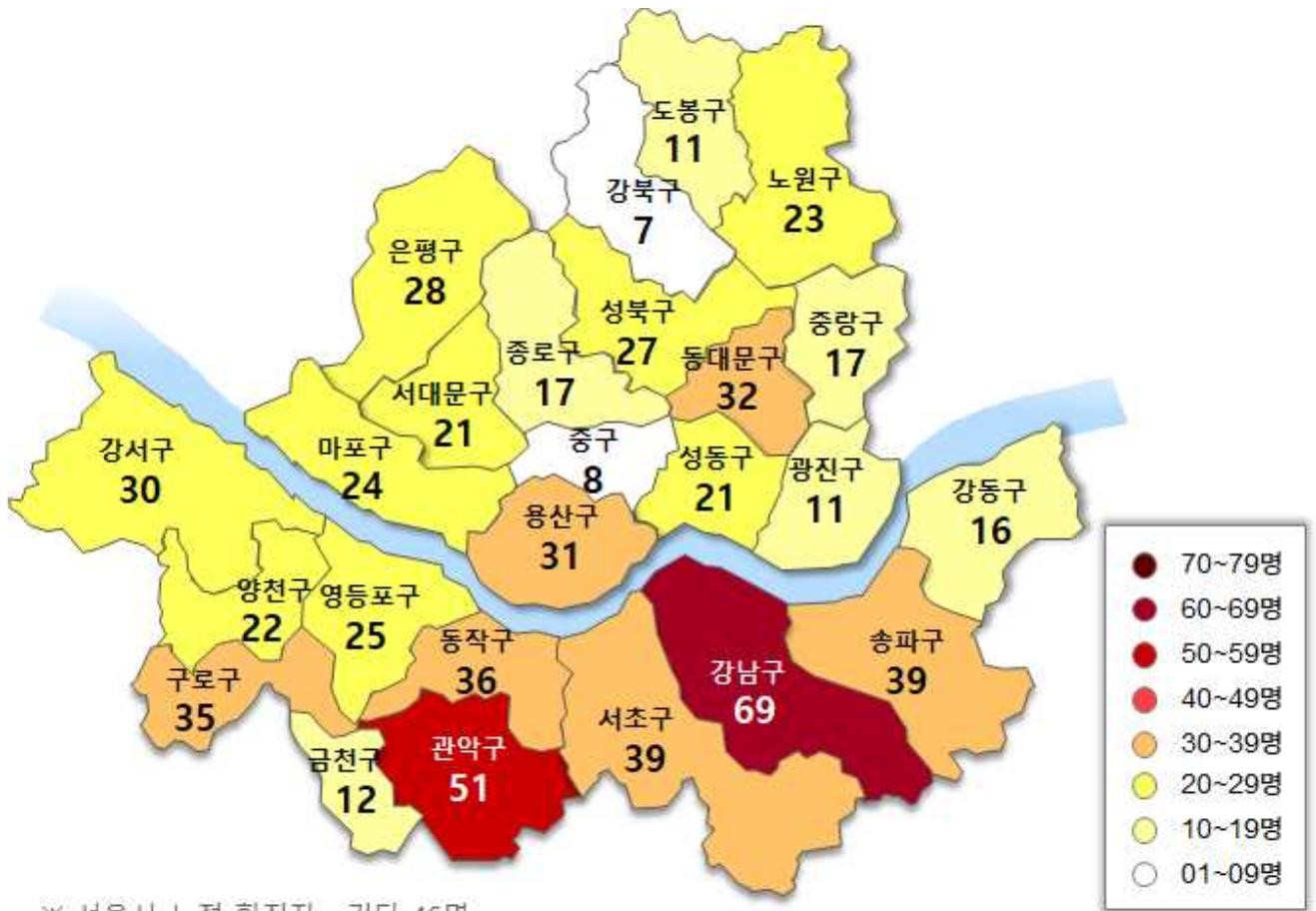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5월 12일 0시 기준,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총 698명임 (거주지 기준으로 강남69, 관악51, 서초39, 송파39, 동작36, 구로35, 동대문32, 용산31, 강서30, 은평28, 성북27, 영등포25, 마포24, 노원23, 양천22, 성동21, 서대문21, 종로17, 중랑17, 강동16, 금천12, 광진11, 도봉11, 중구8, 강북7, 기타46(타시도 이관))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기타	계	
누계	17	8	31	21	11	32	17	27	7	11	23	28	21	24	22	30	35	12	25	36	51	39	69	39	16	46	698	
5/11		1	1					1	1				1			2				1	1						1	10
5/10			3	1	1	1		1	1						1					2	3		4	1	1		20	
5/9			4		2		1	2		1			1			2				1	1	1	1	1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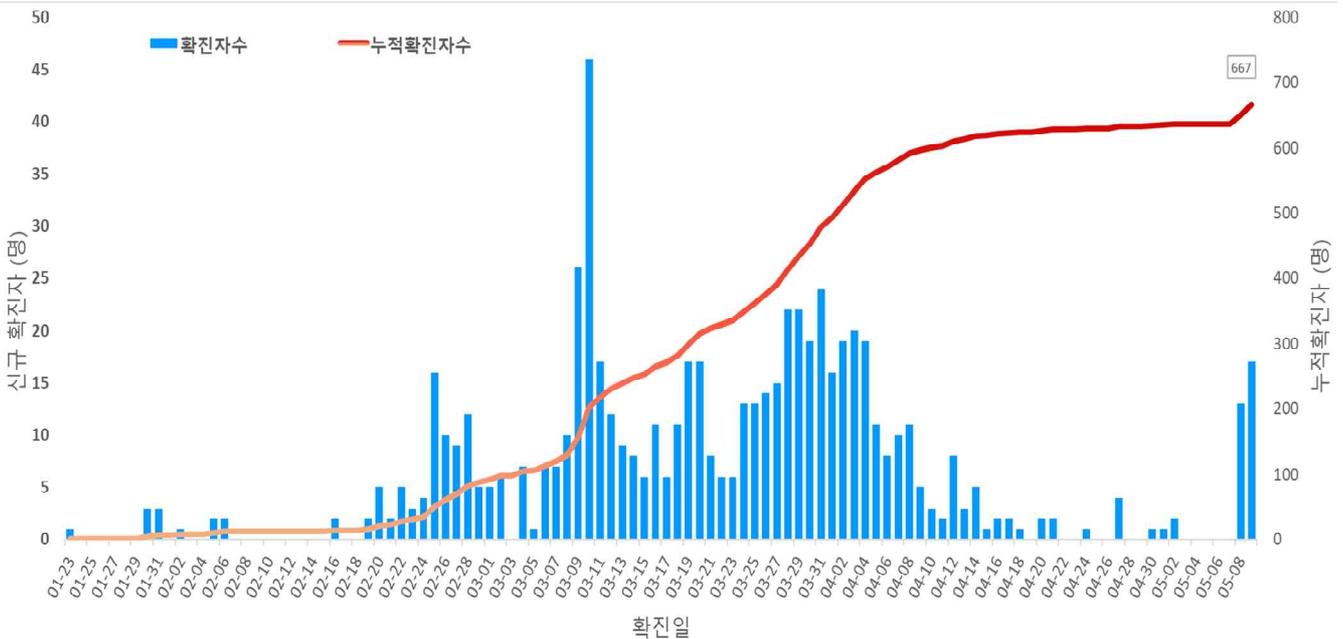
※ 서울시 누적 확진자 : 기타 46명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발생 현황(5.10. 18시 기준)

○ 확진자 일별 발생 추이 및 누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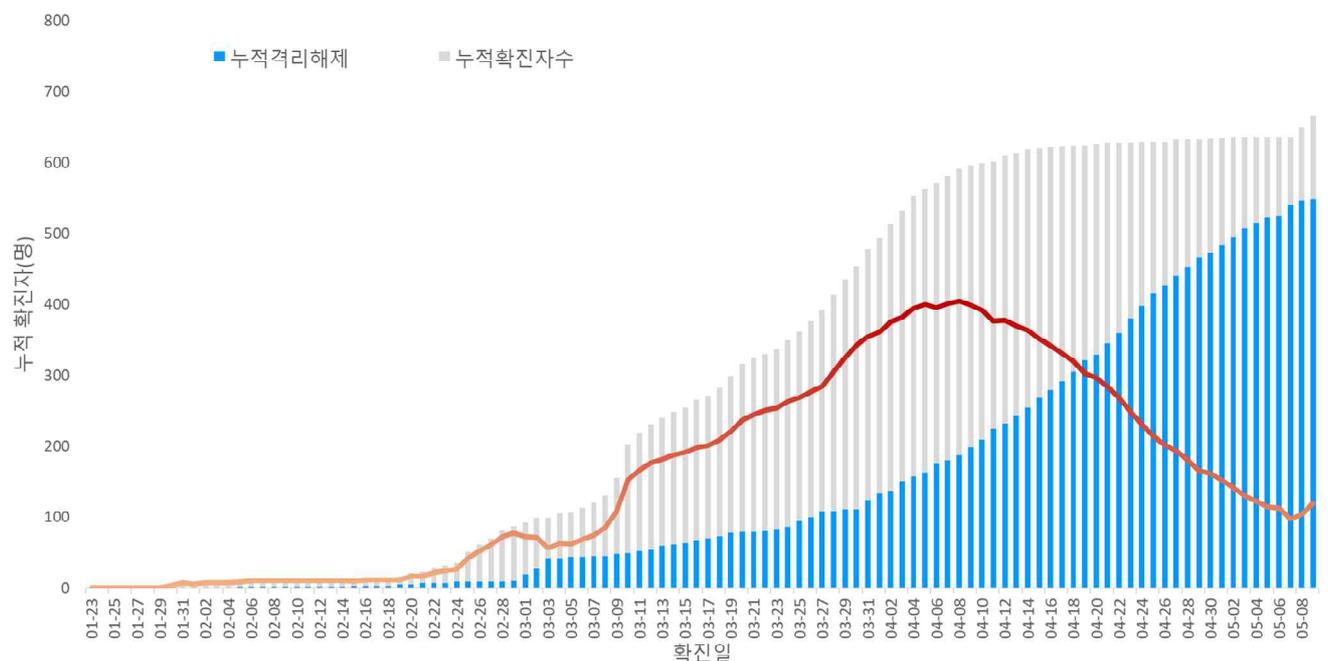
-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누적환자 총 688명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일별 발생추이 및 누적 현황(명, 확진일 기준)

○ 누적격리중 및 격리해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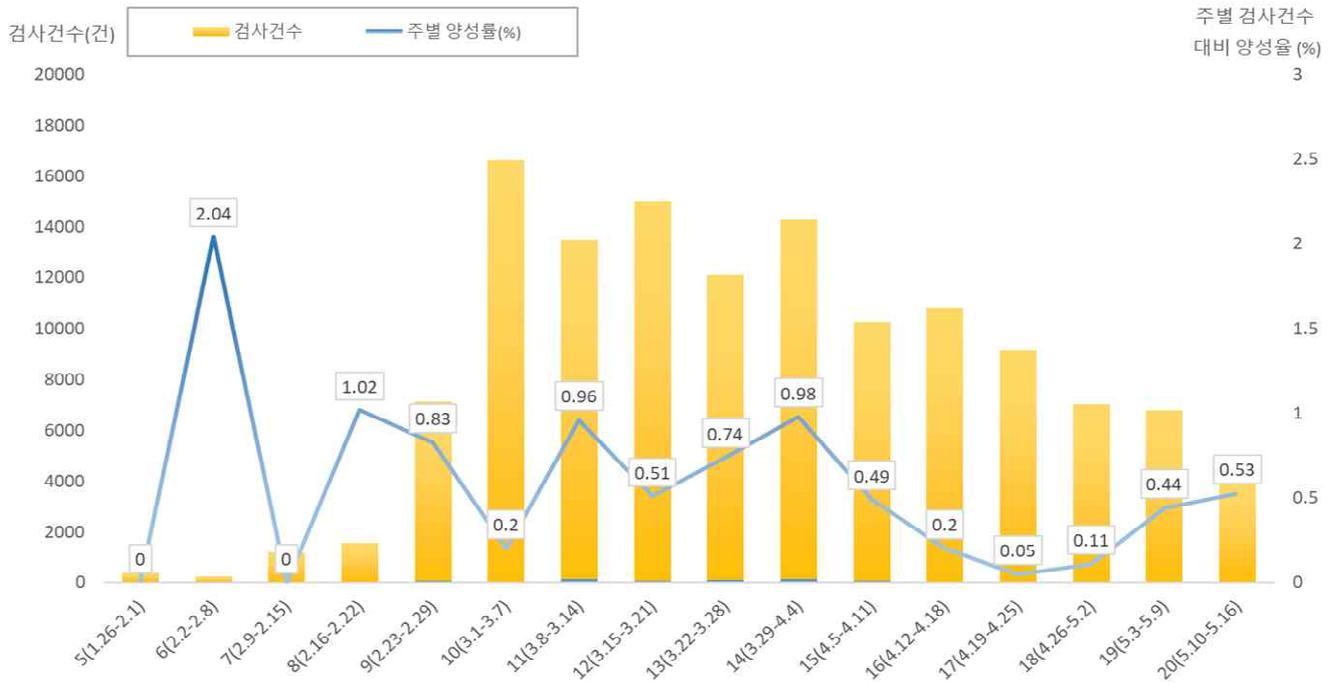
- 총 확진자 688명 중 격리해제 552명(80.2%)로 4.8일(410명) 이후 격리중인 환자 감소세(현재 136명)
- 격리해제 552명 : 퇴원자 547명, 사망 2명, 재입원 3명



서울시 코로나19 누적격리중 및 격리해제자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 주별 검사건수 및 확진환자 양성률

- 총 검사건수 123,889건(금주 6,782건) 중 667명 확진 (검사 대비 양성률 0.53%)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주별 검사현황 및 양성률

□ 인적 특성별 발생현황(5.10. 18시 기준)

- (성별) 여성이 52.9%로 남성보다 많음
- 치명률은 전체 0.3%이고, 80세 이상의 치명률은 6.3%임

서울시 성별, 연령별 확진환자 퇴원, 입원, 사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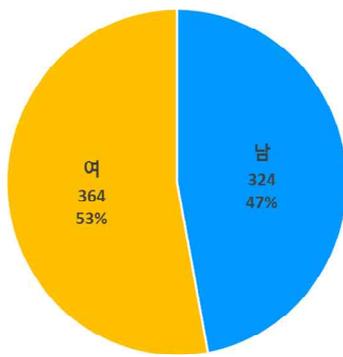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확진자 (%)	퇴원자 (%)	퇴원자 평균 입원일(일)	35일 이상 입원자(%)	사망자	치명률 (%)
계	688 (100.0)	547 (79.5)	24.7	139 (20.2)	2	0.3
성별	남성 324 (47.1)	264 (81.5)	25.1	58 (17.9)	2	0.6
	여성 364 (52.9)	283 (77.7)	24.4	81 (22.3)	0	0
연령	0-9 9 (1.3)	8 (88.9)	18.8	1 (11.1)	0	0
	10-19 31 (4.5)	26 (83.9)	26.7	5 (16.1)	0	0
	20-29 223 (32.4)	156 (70.0)	23.5	65 (29.1)	0	0
	30-39 120 (17.4)	97 (80.8)	24.3	22 (18.3)	0	0
	40-49 102 (14.8)	88 (86.3)	25.3	16 (15.7)	1	1
	50-59 115 (16.7)	101 (87.8)	26.3	13 (11.3)	0	0
	60-69 46 (6.7)	38 (82.6)	27.7	8 (17.4)	0	0
	70-79 26 (3.8)	21 (80.8)	21.8	5 (19.2)	0	0
	80이상 16 (2.3)	12 (75.0)	22.1	4 (25.0)	1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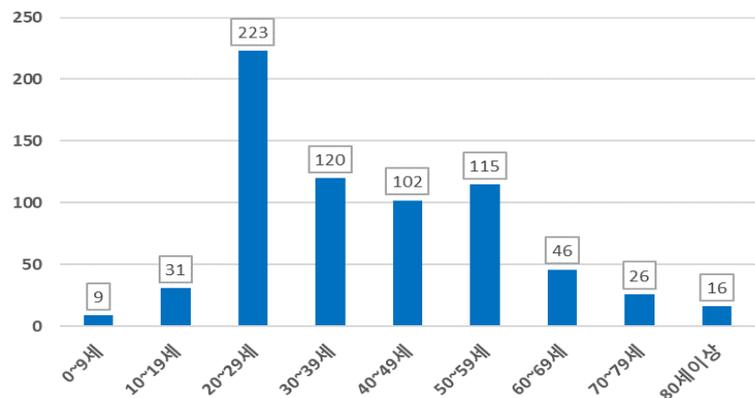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평균 입원일수(전체)=(퇴원자, 비퇴원자 입원일의 합계)/(전체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분포 현황



성별



연령별

○ 연령별 확진자 치료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연령별 확진자 치료 현황(명, 확진일 기준)

□ 자치구별 발생현황(신고 구 기준)(5.10. 18시 기준)

- 강남구 발생이 10.0%(69명)로 가장 높았으며, 관악구 7.3%(50명), 송파구 5.7%(39명), 서초구 5.5%(38명) 순이었음
- 자치구별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용산구가 13.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13.0명, 종로구 11.6명, 관악구 10.1명 순이었음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누계		증가현황	발생률 (10만명당)
	(명)	(%)		
서울특별시	688	100.0	▲(+21)	7.18
종로구	17	2.5	-	11.60
중구	11	1.6	-	9.04
용산구	30	4.4	▲(+3)	13.71
성동구	21	3.1	▲(+1)	7.02
광진구	11	1.6	▲(+1)	3.16
동대문구	33	4.8	▲(+1)	9.70
중랑구	17	2.5	▲(+1)	4.31
성북구	27	3.9	▲(+1)	6.26
강북구	6	0.9	▲(+1)	1.93
도봉구	10	1.5	-	3.01
노원구	23	3.3	-	4.32
은평구	28	4.1	-	5.91
서대문구	21	3.1	-	6.93
마포구	24	3.5	-	6.54
양천구	22	3.2	▲(+1)	4.83
강서구	28	4.1	-	4.77
구로구	35	5.1	-	8.73
금천구	12	1.7	-	5.23
영등포구	25	3.6	-	6.94
동작구	35	5.1	▲(+2)	8.97
관악구	50	7.3	▲(+3)	10.14
서초구	38	5.5		8.96
강남구	69	10.0	▲(+4)	12.98
송파구	39	5.7	▲(+1)	5.89
강동구	16	2.3	▲(+1)	3.76
타시도	38	5.5	-	-
기타	2	0.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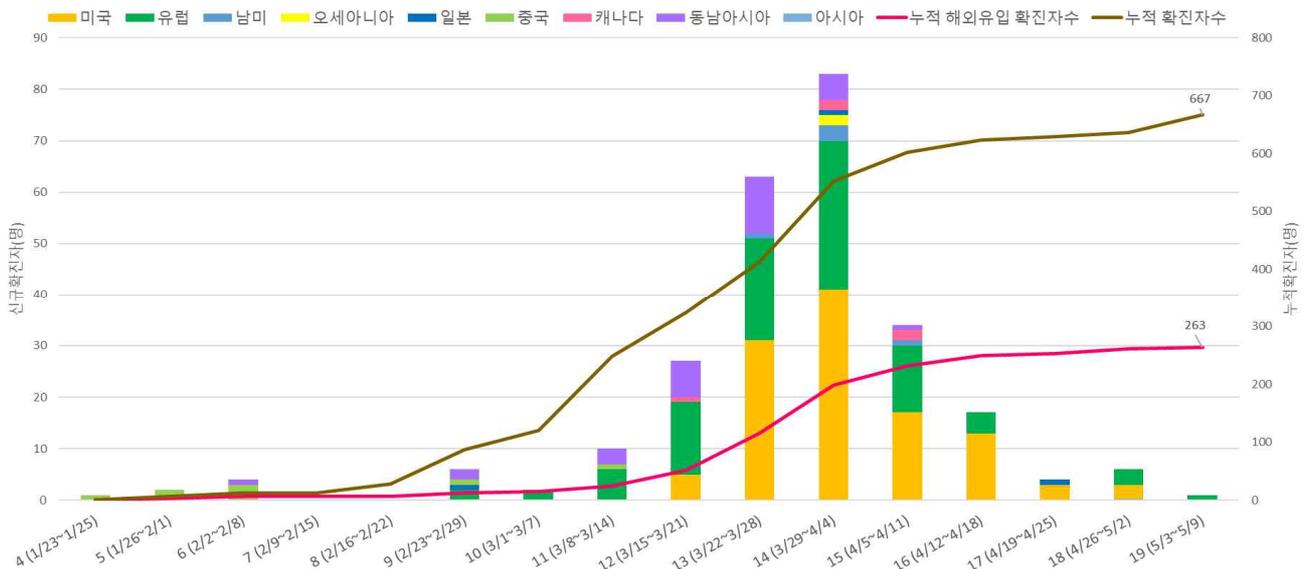
□ 국외 유입 현황(5.10. 18시 기준)

- 국외유입 사례 추정되는 누적 확진자 수는 261명임
- 주요 국외유입 국가는 미국 43.0%, 유럽 35.7%, 동남아시아 11.4% 순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해외유입 확진자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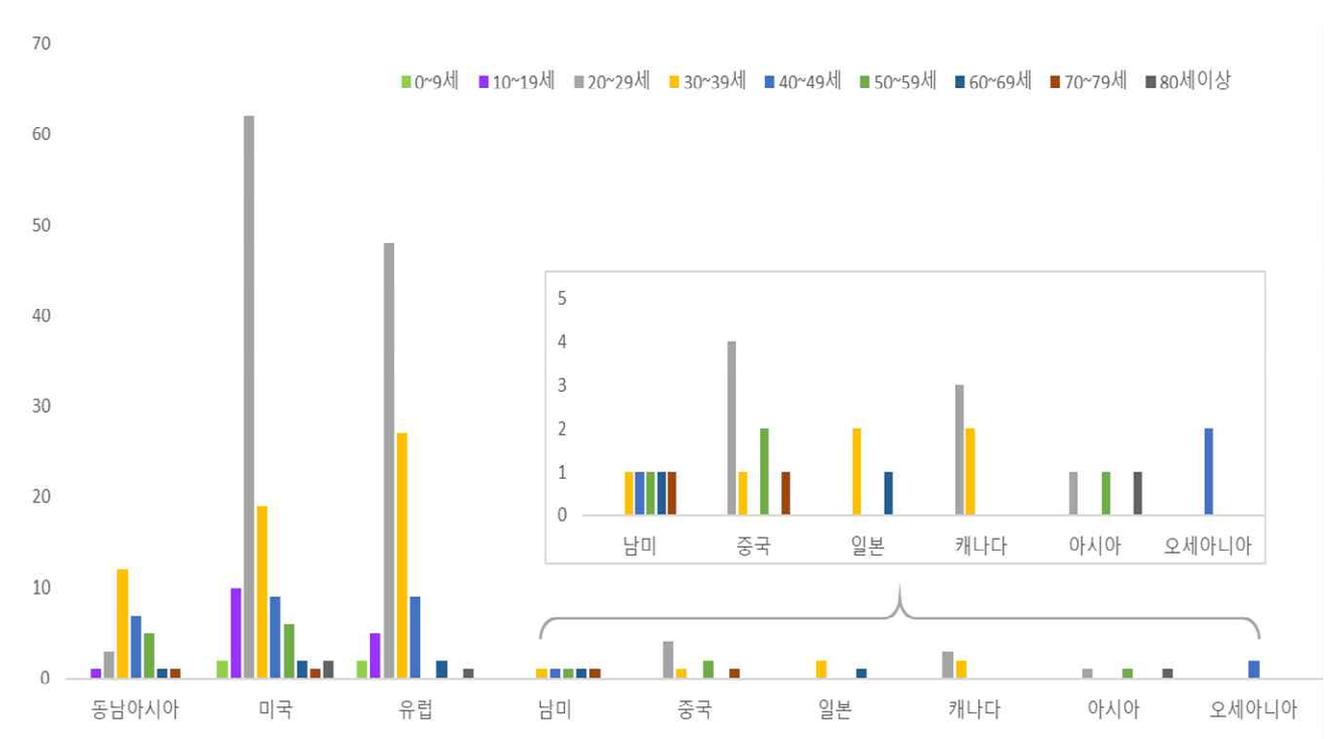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	캐나다	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필리핀)	합계
누계	113	93	30	8	3	5	5	2	2	261
증가현황	-	-	-	-	-	-	-	-	-	-
백분율(%)	43.0	35.7	11.4	3.0	1.1	1.9	1.9	0.8	0.8	100.0



서울시 코로나19 신규·누적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 국가별 해외유입 연령 분포 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연령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명, 확진일 기준)

□ 접촉자 관리 현황(5.10. 18시 기준)

○ 서울시 관리 누적 접촉자는 17,841명으로, 그중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진된 사례는 0.9%(158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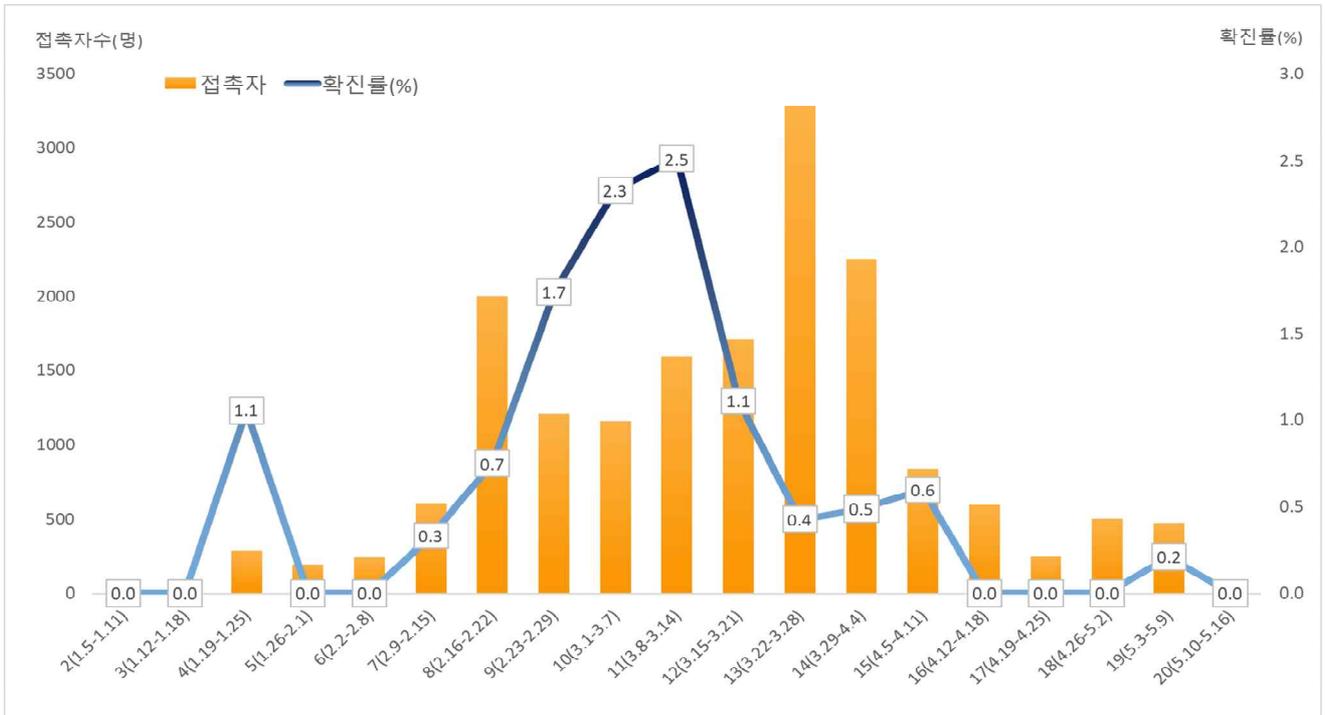
서울시 성별, 연령별 코로나19 접촉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합계	성별		연령(세)									
		남	여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이상	확인불가
누계	17,841	9,409	8,432	384	984	6,468	3,320	2,298	2,113	1,264	661	247	102
(%)	(100.0)	(52.7)	(47.3)	(2.2)	(5.5)	(36.3)	(18.6)	(12.9)	(11.8)	(7.1)	(3.7)	(1.4)	(0.6)
확진자	158	78	80	7	9	34	16	24	46	13	6	3	-
(%)	(0.9)	(0.8)	(0.9)	(1.8)	(0.9)	(0.5)	(0.5)	(1.0)	(2.2)	(1.0)	(0.9)	(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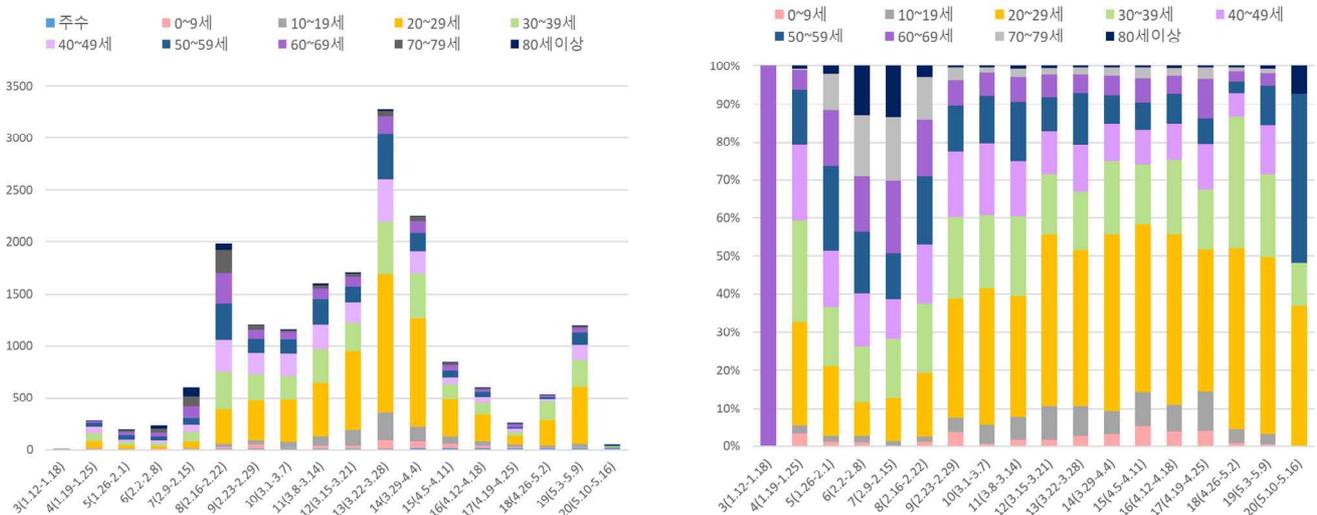
※ 접촉자 중 확진자수(명, %)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cdc.go.kr)에 등록된 접촉자 데이터를 기준으로 함

○ 주별 접촉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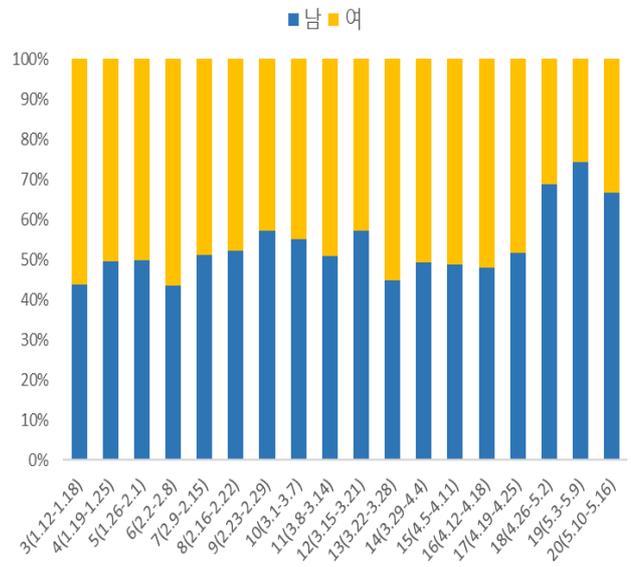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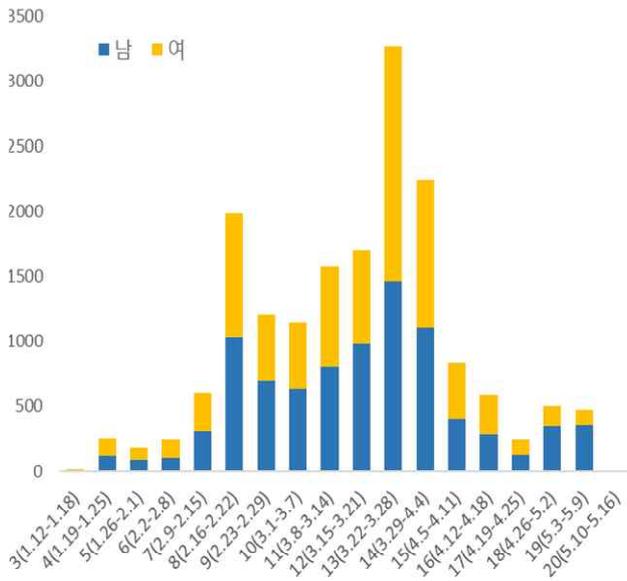
서울시 코로나19 주별 접촉자 현황 및 확진율 (명, %, 최종접촉일 기준)

○ 연령별 접촉자 발생 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연령별 분포(명, %, 최종접촉일 기준)

○ 성별 접촉자 발생 현황



서울시 코로나19 성별 분포(명, %, 최종접촉일 기준)

● 서울시 전체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5.11.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합 계	자치구			의료기관					차량 이동식
	소계	보건소내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 병원	
84	39	35	4	44	5	6	8	25	1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5.11.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개소)

현황		세부현황		
설치 (A+B+C)	검체채취 가능 (A+B)	보건소 내 (A)	보건소 외 (B)	상담소 (C)
39	36	35*	1	3

* (보건소 내 2개소 운영) 10개구(중구·성동·동대문·중랑·성북·강북·은평·양천·금천·강남·강동구)

(보건소 내 1개소 운영) 15개구(종로·용산·광진·도봉·노원·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서초·송파구)

※ 보건소 외 선별진료소 1개소: 구로구 가리봉동

※ 상담소 3개소 :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자양보건지소)

●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5.11.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 건)

날 짜	진 료		검 체		X-ray	
	계	누 계	계	누 계	계	누 계
5. 10.(일)	3,632	128,652	3,496	99,766	1	1,224
5. 9.(토)	2,808	125,020	2,717	96,270	1	1,223
5. 8.(금)	2,032	122,212	1,905	93,553	2	1,222
5. 7.(목)	1,186	120,180	1,077	91,648	0	1,220
5. 6.(수)	1,094	118,994	1,009	90,571	0	1,220
5. 5.(화)	659	117,900	629	89,562	0	1,220
5. 4.(월)	1,123	117,241	995	88,933	1	1,220
전일대비 증감	824	3,632	779	3,496	0	1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5.11.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5. 10.(일)	누계	5. 10.(일)	누계	
계	913	107,047	911	67,635	
국가지정	97	15,154	97	7,756	
지역거점	264	17,329	264	13,893	
국공립병원	27	7,062	25	5,926	
민간병원	530	69,026	528	41,485	

● 차량이동식(Drive-Thru)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2020.5.11. 17시 서울시 일일보고 기준)

(단위: 건)

구분	5. 10.(일)			누계			비고
	진료인원	검사인원	양성건수	진료인원	검사인원	양성건수	
계	0	0	-	6,841	5,452	6	
이대서울병원	0	0	-	1,889	1,880	3	3.3. 개소
구 소방학교	-	-	-	1,550	1,146	2	운영중단
은평병원	-	-	-	896	782	0	
잠실주경기장	-	-	-	2,506	1,644	1	

※ 은평병원, 잠실주경기장 4.27.(월)부터 운영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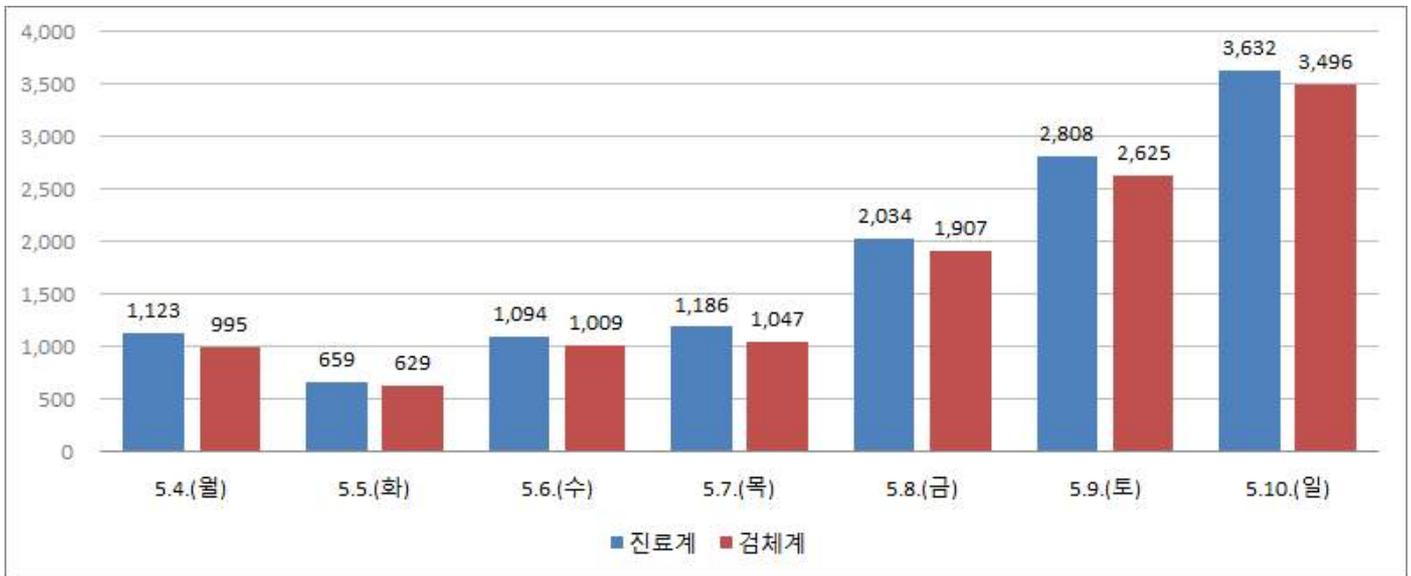
※ 구 소방학교 5.8.(금)부터 운영 중단

- 해외입국자 검사(4.3.~5.7.) : 누적 98명 / 5.7. 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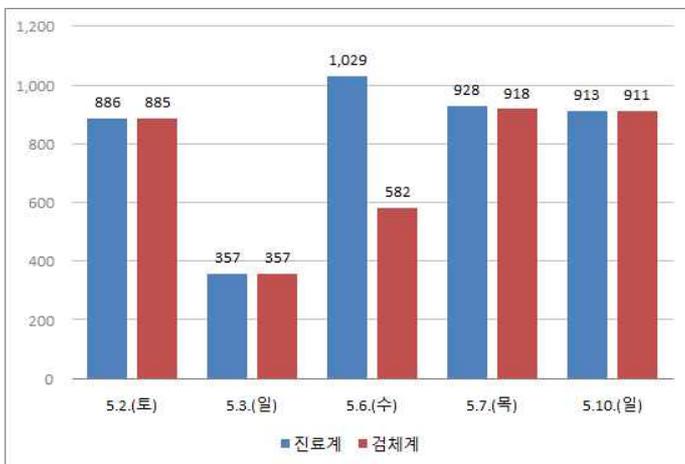
계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양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98	1	2	2	1	2	1	1	1	2	1	18	17	49
서초(26)		2							2	1	13	7	1
송파(72)	1		2	1	2	1	1	1			5	10	48

● 일자별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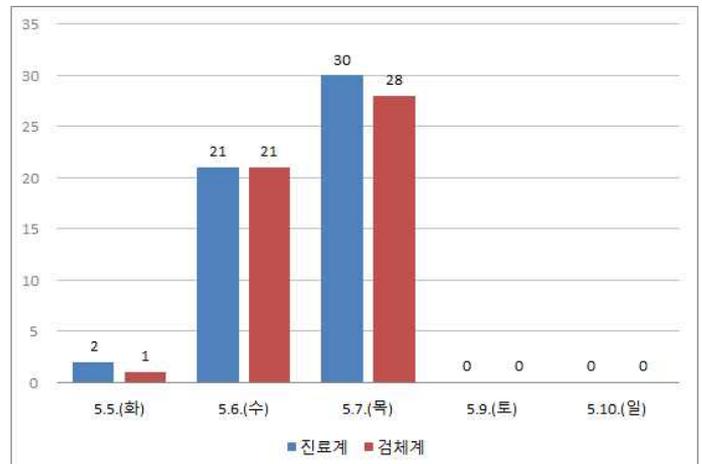
(단위: 건)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차량이동식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 국내 확진자는 10,909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35명 추가)이며, 이 중 격리해제는 9,632명(전일 대비 22명 증가)으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함
- 사망자는 256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0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2.35%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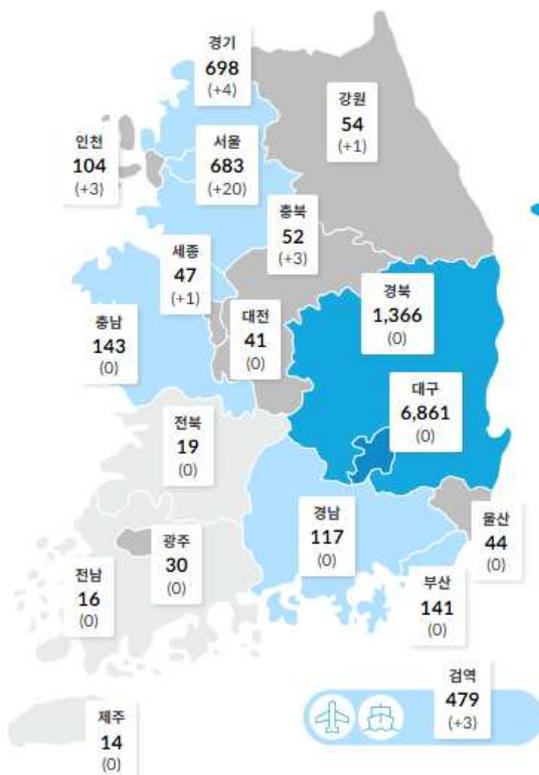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5.11.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5.10.(일) 0시 기준	663,886	10,874	9,610	1,008	256	653,012	10,128	642,884
5.11.(월) 0시 기준	668,492	10,909	9,632	1,021	256	657,583	10,922	646,661
증감	4,606 (0.7%)	35 (0.3%)	22 (0.2%)	13 (1.3%)	0 (0.0%)	4,571 (0.7%)	794 (7.8%)	3,777 (0.6%)

- 새롭게 확진된 환자 35명의 현황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1,021	136	13	365	22	0	2	5	2	125	11	10	9	5	4	85	7	1	219
격리 해제	9,632	545	125	6,318	82	30	38	38	45	557	41	42	134	14	12	1,228	110	13	260
사망	256	2	3	178	0	0	1	1	0	16	2	0	0	0	0	53	0	0	0
합계	10,909	683	141	6,861	104	30	41	44	47	698	54	52	143	19	16	1,366	117	14	479
증감	35	20	0	0	3	0	0	0	1	4	1	3	0	0	0	0	0	0	3
해외 유입	6	0	0	0	1	0	0	0	1	0	1	0	0	0	0	0	0	0	3
지역 발생	29	20	0	0	2	0	0	0	0	4	0	3	0	0	0	0	0	0	0

- * 5월 10일 0시부터 5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본부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신고내역을 해외유입과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잠정수치를 제시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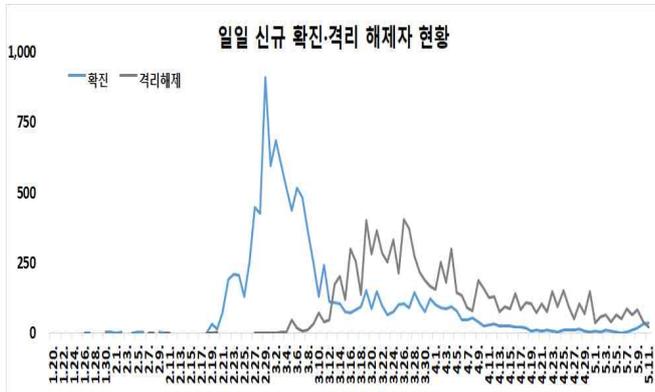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출처: 질병관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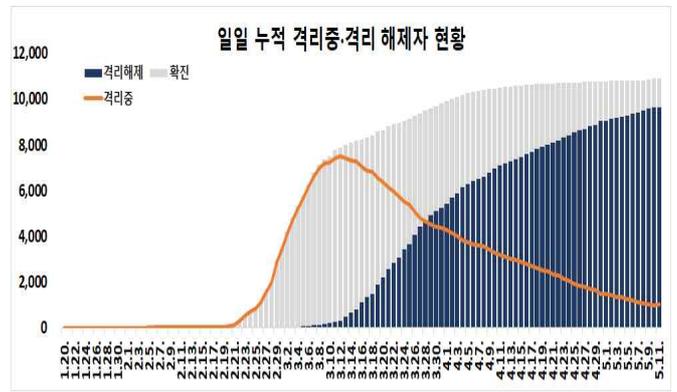
연령별 재양성자 현황

구분	계	(%)
계	393	(100.0)
80세 이상	32	(8.1)
70-79세	26	(6.6)
60-69세	41	(10.4)
50-59세	66	(16.8)
40-49세	52	(13.2)
30-39세	50	(12.7)
20-29세	93	(23.7)
10-19세	25	(6.4)
0-9세	8	(2.0)

- 국내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5.11. 00:00 기준)



일일 신규 확진·격리 해제자 현황



일일 누적 격리중·격리 해제자 현황

- *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10,909명(전일 0시 기준 35명 추가)으로 보고되었고 이 중 9,632명이 격리해제 되어, 격리해제 환자 수는 증가하고,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는 추세임
(격리 중 : 5.9. 1,016명 → 5.10. 1,008명 → 5.11. 10,909명 / 격리해제 : 5.9. 9,568명 → 5.10. 9,610명 → 5.11. 9,632명)
- * 금일 신규 확진자 35명 중 검역과정에서 3명(8.5%)이 발생하였고, 서울 20명, 경기 4명, 인천 3명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7.1%를 차지함
- * 금일 신규 확진자 35명 중 지역사회 발생이 29명(82.8%)이며, 모두 이태원 클럽 집단발생 관련 확진자임(이태원 클럽 방문자 20명, 확진자 접촉자 9명)
 - 5.11. 12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총 86명이며, 관련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임
 - **(지역별)** 서울 51명, 경기 21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
 - **(감염경로별)** 이태원 클럽 직접방문 관련 63명, 가족·지인·동료 등 기타 접촉자 23명
- * 또한, 신규 확진자 35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6건(17.1%)으로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미주 2명, 유럽 1명, 아프리카 1명, 기타 2명 / 내국인 6명, 외국인 0명 / 검역 3명, 지역사회 3명
- * 누적 확진자 10,909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 1,133명(10.3%)으로 확인됨
 - 미주 487명, 유럽 463명, 중국 외 아시아 156명, 중국 19명, 아프리카 7명, 호주 1명 / 내국인 1,024명, 외국인 109명 / 검역 479명, 지역사회 654명

-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2020.5.11. 00:00 기준)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현황

감염경로 구분	신규환자	(%)
계	171	(100.0)
해외유입	87	(50.9)
해외유입 관련	1	(0.6)
병원 및 요양병원 등	2	(1.2)
지역집단발병	73	(42.7)
선행 확진자 접촉	1	(0.6)
조사중	7	(4.1)



* 4월 27일 0시부터 5월 11일 0시까지 2주간 신고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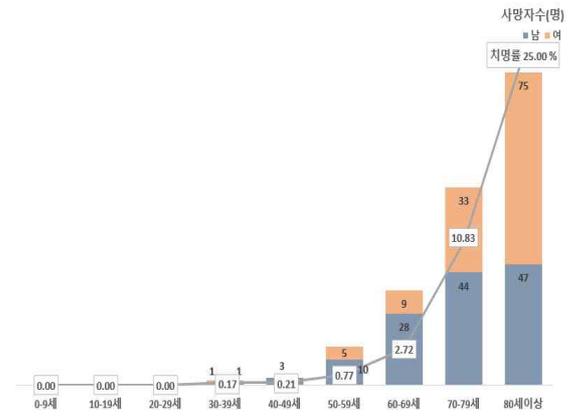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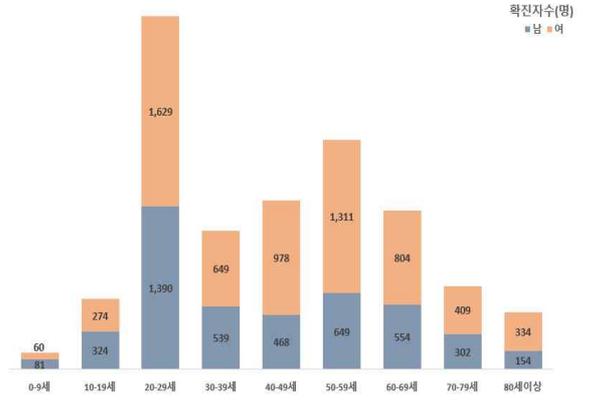
최근 2주간 감염경로별 신규환자 발생 분포

*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환자 171명 중 해외유입이 87명(50.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지역집단감염이 73명으로 42.7%의 비율을 차지함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2020.5.11. 0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확진자	(%)	사망	(%)	치명률(%)	
계	10,909	(100.0)	256	(100.0)	2.35	
성별	남성	4,461	(40.89)	133	(51.95)	2.98
	여성	6,448	(59.11)	123	(48.05)	1.91
연령	80세 이상	488	(4.47)	122	(47.66)	25.00
	70-79	711	(6.52)	77	(30.08)	10.83
	60-69	1,358	(12.45)	37	(14.45)	2.72
	50-59	1,960	(17.97)	15	(5.86)	0.77
	40-49	1,446	(13.26)	3	(1.17)	0.21
	30-39	1,188	(10.89)	2	(0.78)	0.17
	20-29	3,019	(27.67)	0	(0.00)	-
	10-19	598	(5.48)	0	(0.00)	-
	0-9	141	(1.29)	0	(0.00)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성별·연령별 분포

* 국내 확진자는 10,909명, 사망자는 256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치명률은 2.35%로 확인됨

✓ 성별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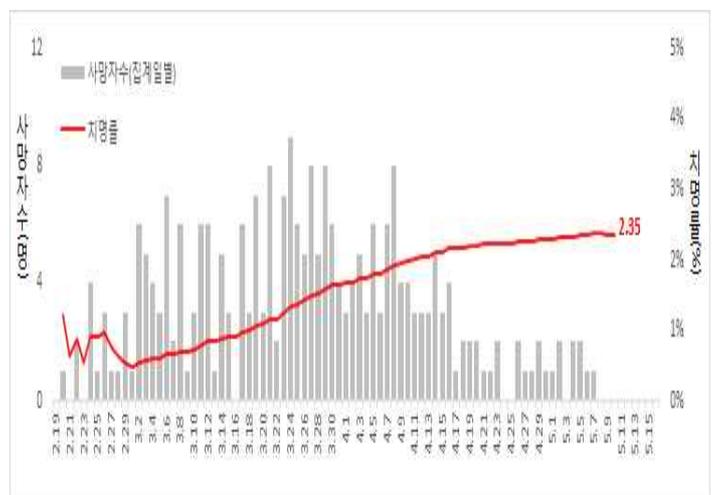
- * 성별로는 확진자에서 여성이 6,448명(59.11%)으로 남성 4,461명(40.89%)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남성이 133명(51.95%)으로 여성 123명(48.05%)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성별에 따른 치명률은 4,461명의 확진자 중 133명이 숨진 남성에서 2.98%로 여성 1.91%보다 높은 치명률을 보임

✓ 연령별 분포 현황

- * 확진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3,019명(27.6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50대 1,960명(17.97%), 40대 1,446명(13.26%), 60대 1,358명(12.45%) 순으로 나타남
- * 사망자의 경우 확진자의 연령대와는 달리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236명(92.19%)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함
- 연령대별 치명률은 488명의 확진자 중 122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25.00%, 70대가 10.83%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위중·중증환자 현황

구분	계	중증 (%)	위중 (%)
계	23	5 (100.0)	18 (100.0)
80세 이상	9	2 (40.0)	7 (38.9)
70-79세	8	1 (20.0)	7 (38.9)
60-69세	3	1 (20.0)	2 (11.1)
50-59세	1	1 (20.0)	0 (0.0)
40-49세	2	0 (0.0)	2 (11.1)
30-39세	0	0 (0.0)	0 (0.0)
20-29세	0	0 (0.0)	0 (0.0)
10-19세	0	0 (0.0)	0 (0.0)
0-9세	0	0 (0.0)	0 (0.0)



일별 사망자 현황

● 국외 발생 현황

- 5.11.까지 보고된 국외 총 확진자수는 **4,038,182명**으로 전일 대비 **1.99% 증가(78,818명 신규환자)**
- 이 중 **281,113명(3,268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6.96%(7.02%)**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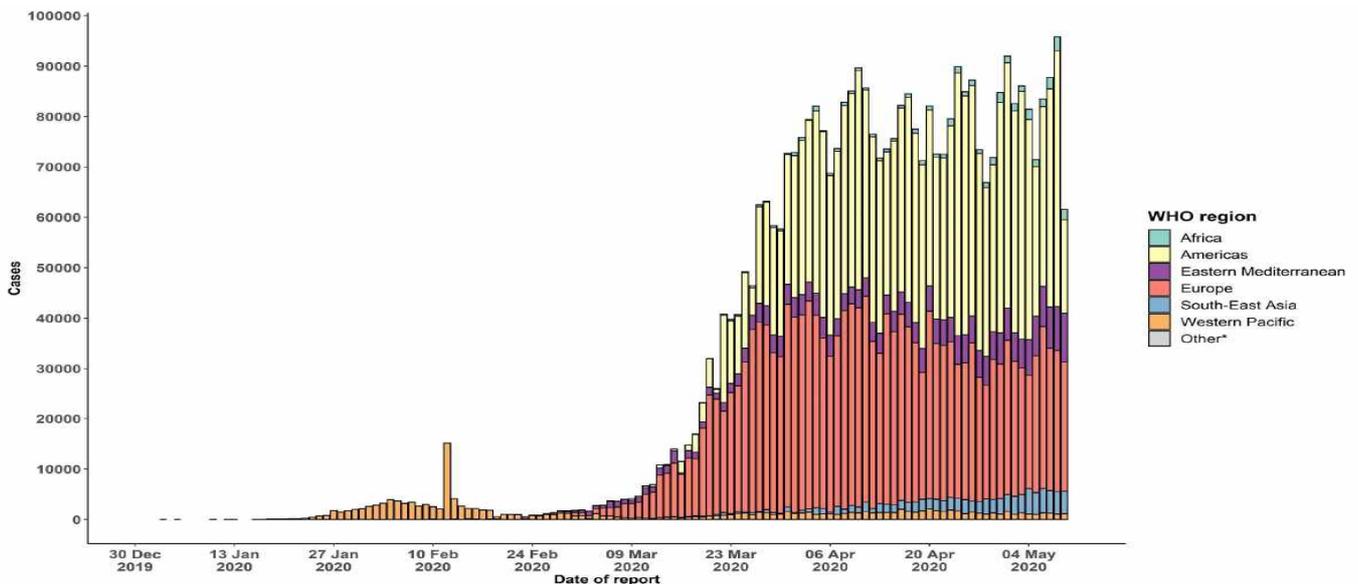
국가 및 지역	확진자수(%)		사망자수(%)		치명률(%)	증가율(%) *5.3. 대비
아시아	489,267	12.1%	12,198	4.3%	2.49%	4.11%
중동	247,098	6.1%	8,839	3.1%	3.58%	3.95%
아메리카	1,761,743	43.6%	104,383	37.1%	5.92%	1.99%
유럽	1,485,534	36.8%	154,326	54.9%	10.39%	0.93%
오세아니아	8,099	0.2%	118	0.0%	1.46%	0.21%
아프리카	39,179	1.0%	982	0.3%	2.51%	5.39%
기타*(섬, 영토 등)	7,262	0.2%	267	0.1%	3.68%	0.35%
전세계	4,038,182	100.0%	281,113	100.0%	6.96%	1.99%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기타 영토는 WHO situation report 기준, *증가율=(5.10.확진자-5.3. 확진자)/5.3.확진자*100

국외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5. 11. 09: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확산 현황 (2020. 5. 11. 기준)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 5. 10.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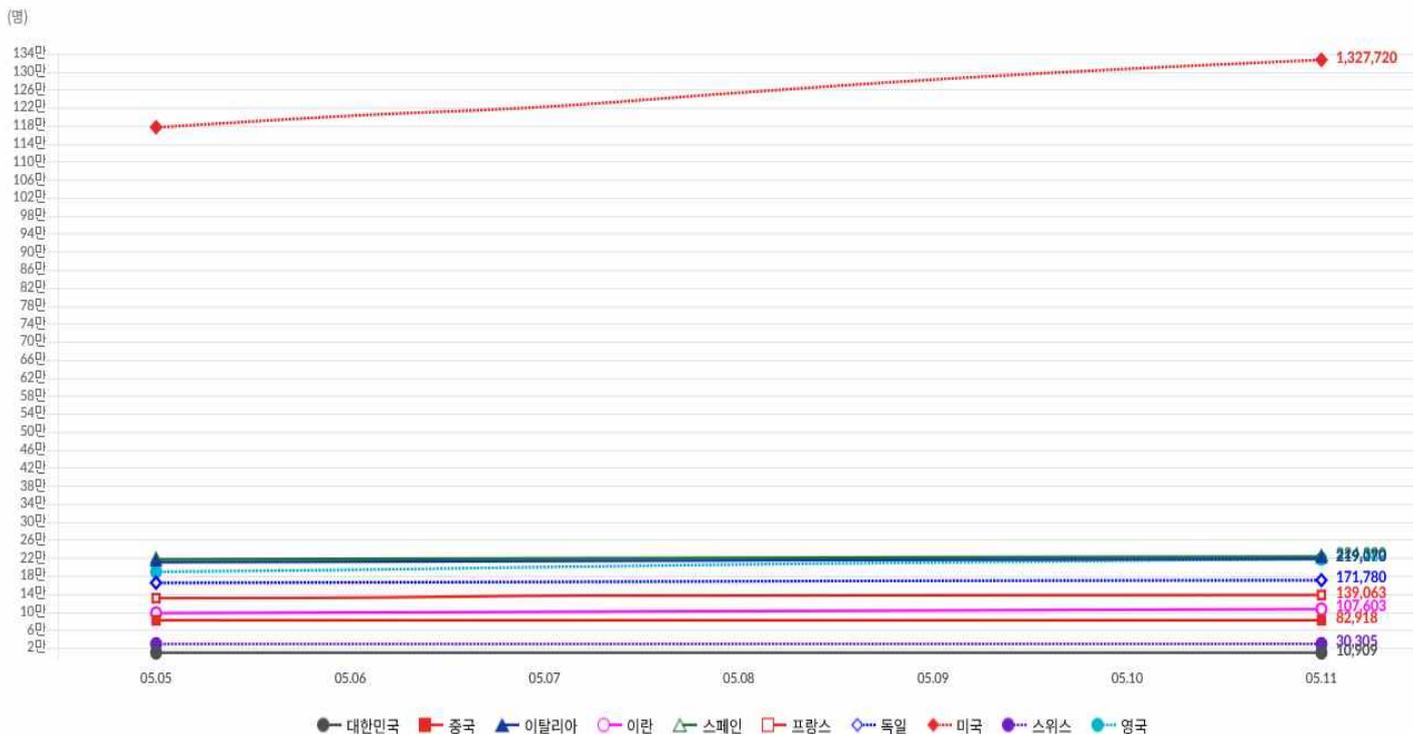
● **주요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5. 11.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 치명률은 프랑스 18.97%, 벨기에 16.31%, 영국 14.53%, 이탈리아 13.95%, 네덜란드 12.76%, 스페인 11.86%, 인도네시아 7.03%, 캐나다 6.95%, 이란 6.17%, 미국 5.99%, 중국 5.59%, 스위스 5.08%, 독일 4.40%, 일본 3.93%, 터키 2.73%, 한국 2.35%순으로 높았음.
- 전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은 인도네시아 4.06%, 영국1.82%, 캐나다 1.82%, 미국 1.53%, 이란 1.30%, 터키 1.12%, 벨기에 0.92%, 네덜란드 0.58%, 이탈리아 0.37%, 스페인 0.36%, 일본 0.32%, 한국 0.32%, 독일 0.27%, 스위스 0.24%, 프랑스 0.15%, 중국 0.02%순으로 높았음

국가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명)	전일 대비 확진자 증가율(%)	치명률(%)
	5.5	5.6	5.7	5.8	5.9	5.10	5.11			
미국	1,177,784	1,203,502	1,223,468	1,254,740	1,283,829	1,307,676	1,327,720	79,495	1.53%	5.99%
스페인	218,011	219,329	220,325	221,447	222,857	223,578	224,390	26,621	0.36%	11.86%
영국	190,584	194,990	201,101	206,715	211,364	215,260	219,183	31,855	1.82%	14.53%
이탈리아	211,938	213,013	214,457	215,858	217,185	218,268	219,070	30,560	0.37%	13.95%
독일	165,914	167,007	168,162	169,430	170,588	171,324	171,780	7,560	0.27%	4.40%
프랑스	131,863	132,967	137,150	137,779	138,421	138,854	139,063	26,380	0.15%	18.97%
터키	127,659	129,491	131,744	133,721	135,569	137,115	138,657	3,786	1.12%	2.73%
이란	98,647	99,970	101,650	103,135	104,691	106,220	107,603	6,640	1.30%	6.17%
중국	82,881	82,883	82,885	82,886	82,887	82,901	82,918	4,633	0.02%	5.59%
캐나다	59,844	61,159	63,496	63,895	66,434	66,780	67,996	4,728	1.82%	6.95%
벨기에	50,267	50,509	50,781	51,420	52,011	52,596	53,081	8,656	0.92%	16.31%
네덜란드	40,770	41,087	41,319	41,774	42,093	42,382	42,627	5,440	0.58%	12.76%
스위스	29,981	30,009	30,060	30,126	30,207	30,231	30,305	1,538	0.24%	5.08%
일본	15,231	15,354	15,463	15,547	15,628	15,747	15,798	621	0.32%	3.93%
인도네시아	11,192	11,587	12,071	12,438	12,776	13,112	13,645	959	4.06%	7.03%
한국	10,804	10,806	10,810	10,822	10,840	10,874	10,909	256	0.32%	2.35%

총 국가수	184	184	184	184	186	186	186			
전세계 총환자수	3,512,891	3,600,732	3,687,012	3,779,329	3,874,575	3,959,364	4,038,182	-	1.99%	6.96%
전세계 총사망자수	249,924	255,771	262,084	267,935	273,476	277,845	281,113			

주요 발생국가 주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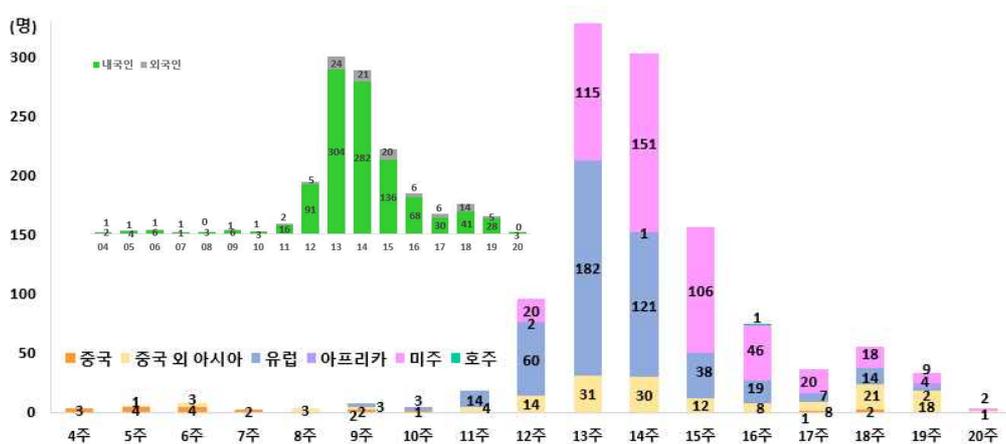
● 해외유입 현황 (2020. 5. 11. 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확진자의 추정 유입국가는 미주 2명, 유럽 1명, 아프리카 1명(탄자니아), 기타 2명(아랍에미리트 1명, 쿠웨이트 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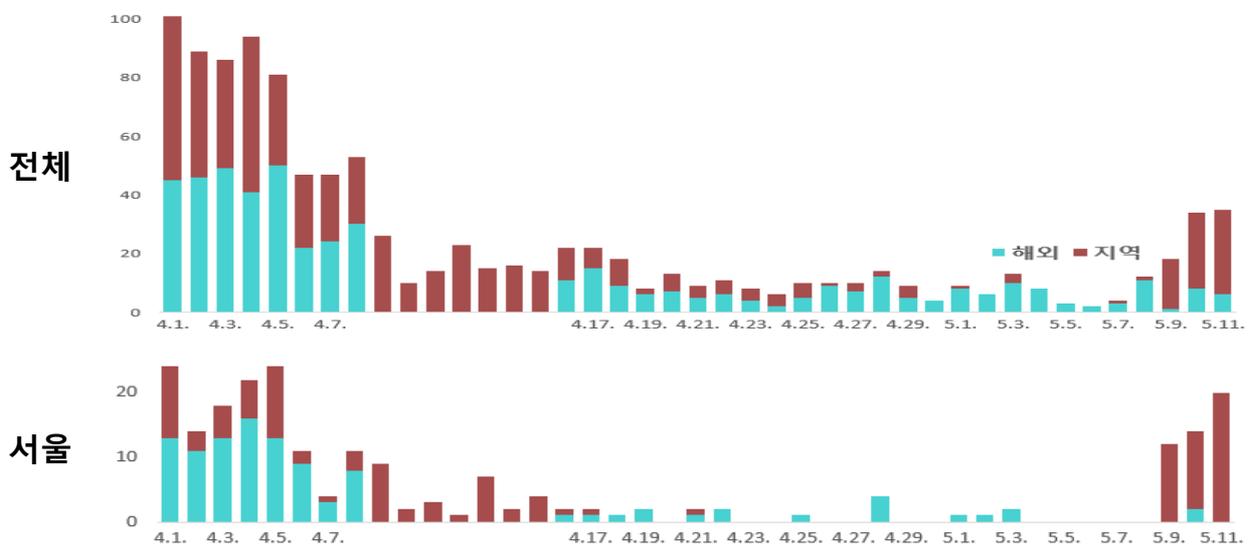
해외유입 현황 5.11. 0시 기준

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중국 외 아시아	유럽	미주	아프리카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6	0	2	1	2	1	0	3	3	6
누계	1,133	19	156	463	487	7	1	479	654	1024
		(1.7%)	(13.8%)	(40.9%)	(43.0%)	(0.6%)	(0.1%)	(42.3%)	(57.7%)	(90.4%)
확진자수(명)		여행국								
중국		-								
중국외아시아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팔라우, 카타르, 터키, 인도, 파키스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등								
유럽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체코,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등								
아프리카		이집트, 남아공·나미비아·짐바브웨								
미주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볼리비아, 우루과이 등								
호주		호주								

해외유입 추정현황(5.11. 0시 기준)



감염경로구분(해외유입, 지역사회)에 따른 전국, 주요지역 일별 신규확진자 현황 (4.1일 이후)



● 서울시, 코로나19 이태원클럽 집단감염 관련 익명검사 및 방역수칙 강화 브리핑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 서울시 현황]

-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지금 지역화 전국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2~3일이 서울시 뿔리느냐 아니냐의 중대고비가 될 것임
- 이태원 클럽 관련 전체 확진자수는 5월 11일 10시 기준, 85명이고 서울 확진자수는 51명임(가족 및 지인 포함)
* 경기 20, 인천 7, 충북 5, 부산 1, 제주1, (5.11. 10시 기준)
- 서울의 경우 이태원 클럽 방문자 및 접촉자 등 현재까지 3,077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중 1049명은 검사 중에 있음

[빠른 전수검사를 위한 익명검사도 불사]

- 현재 이태원 클럽 관련해 확보한 명단 총 5,517명 중에서 2,405명은 통화가 됐으나, 3,112명은 불통상태임. 이는 일부러 전화를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다는 것을 의미함
- 4월 24일부터 5월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인근에 있었던 사람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 나아가서 전체의 안전을 위해 속히 검사를 받아야 함
- 신변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익명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보건소별 번호를 부여할 것임
- 또한, 현재 기지국 접속자 명단 확보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협조를 얻어 다섯 개 클럽과 인근을 방문했던 사람들에 대한 접속자 명단을 신속하게 구할 계획임
- 자발적 검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조치도 병행해서 취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해당 관련자들에게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림. 만약 관련자임에도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2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음

[서울시 유사유흥업소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 강력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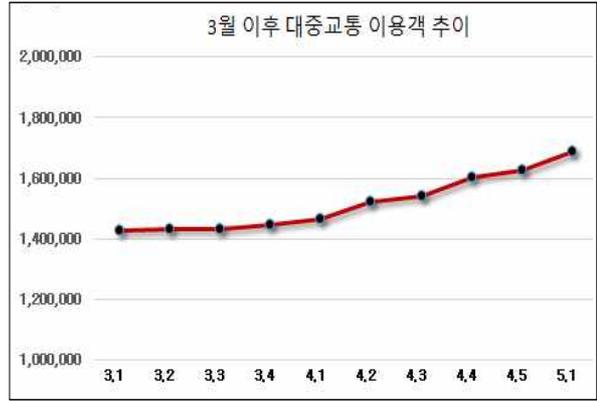
- 서울시는 유사 유흥업소에 대해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고, 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단속 할 계획임
* 유사 유흥업소는 음식, 술과 함께 춤을 추는 행태가 이뤄지는 이른바 헌팅포차 등을 의미함
* 7대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업소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이고,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임
- 지난 5월 9일 서울시는 클럽, 룸살롱,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클럽에 가는 대신, 헌팅포차 등으로 사람이 몰리고 비밀감염이 우려되는 밀접접촉이 빈번히 일어난 것이 확인 됨
- 따라서 감염병 차단을 위한 방역수칙이 자발적으로 지켜지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7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임
- 또한 이미 과거에 집단 감염이 번졌던 PC방, 노래방, 콜센터 등도 철저히 7대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함. 서울시는 계속 엄격하게 점검을 해 나갈 것이며, 감염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이곳들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확대 할 수 밖에 없음

●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생활 속 거리두기' 방안 발표... "승객 분산·혼잡시 마스크 필수"

- 서울시는 일상생활 재개 속에서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 사전예보를 통한 이용승객 분산 유도,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추가 차량 투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교통 이용 '생활 속 거리두기' 대책을 마련하였음
* 개학, 가족의 달 야외활동 본격화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증가 및 혼잡도 상승이 예상되며, 특히 청소년·노인 등 감염병 취약 계층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
-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으로 급감했던 대중교통 이용객 수가 3월부터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혼잡도 분석 및 예측을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교통수단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 학교 개학으로 혼잡도 급증이 예상되는 5.13(수)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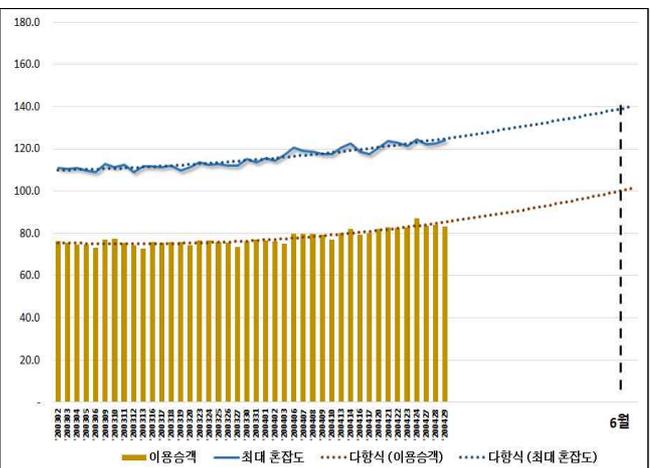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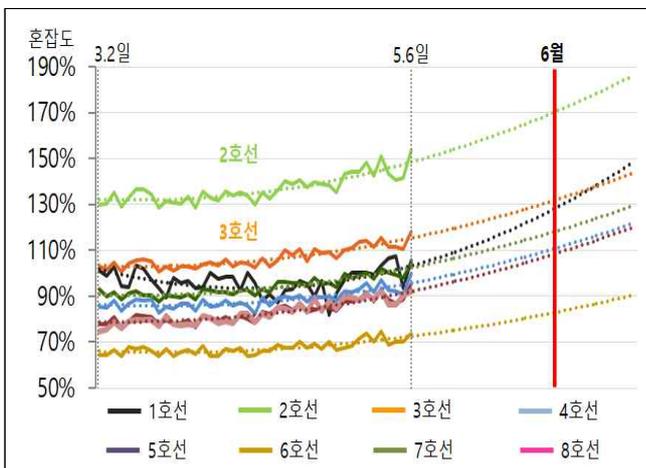
[대중교통 혼잡도 예측 분석...6월 중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 회복예상 혼잡 관리 필요]

- 코로나 발생에 따른 발병 전후 대중교통 이용객수 변화 분석 결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시가 처음 추진한 '잠시 멈춤' 캠페인을 시행한 3월 첫 주 전체 이용객수는 '20년 1월 평균 대비 34.5%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음'
 - * 이용객이 가장 많이 붐비는 출근시간대의 경우, 지하철은 32.8%, 버스는 38.1% 감소하였으며, 버스가 지하철보다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남
- 그러나, 3월 첫 주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이용객수는 4월 들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혼잡도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 이용객수 추이를 살펴보면, 3월 첫 주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 4월부터 증가폭이 커지고 있음
 - * 전주 대비 증가율 : 0.6%(3.2주)→0.0%(3.3주)→-0.8%(3.4주)→1.3%(4.1주)→3.8%(4.2주)→1.3%(4.3주)→3.9%(4.4주)→1.7%(4.5주)→3.6%(5.1주)



※ 5.1주는 연휴(5.1~5.5)를 제외한 5.6일 하루 데이터임

- 교통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하철과 시내버스 혼잡도를 분석한 결과, 현재 혼잡도는 코로나 이전의 약 80~90%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용객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혼잡도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지하철 2호선의 대표적 혼잡구간인 강남구간(낙성대→강남역)의 경우, 코로나19 발병 이전에는 출근시간대 평균 약 140%~150%의 혼잡도를 나타냈으나, 3월 이후 100%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현재(4월 5주)는 약 130%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 특히, 혼잡도 170%대로 코로나 발병이전 최대 혼잡구간인 사당→방배 구간은 현재(4월 5주) 약 150% 대의 혼잡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어 혼잡 구간은 특별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 버스의 경우, 출근시간대 평균 최대혼잡도는 약 138%(19.11월) 수준에서 110%(3월1주)로 감소 후 현재는 120%(4월5주) 수준으로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현재 혼잡도 증가추세를 고려하면, 지하철과 버스 모두 6월 중 코로나19 발병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 * 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중교통 혼잡도 예측이 중요한 바, 지하철 혼잡도와 교통카드 이용인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노선별, 시간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혼잡도를 산출함으로써 개략적인 1일 단위의 노선별 혼잡도 변화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음



- 서울시는 혼잡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한 대책을 마련, 개학 등 정부 전환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지하철 혼잡 단계별 특별대책 마련]

- 서울시와 지하철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전동차 이용객 혼잡도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승객 간 물리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혼잡 단계별로 특별대책을 시행함
 - * 혼잡도가 80% 이하일 때는 '여유', 혼잡도 80~130%은 '보통', 혼잡도 130~150%는 '주의', 혼잡도 150% 이상일 때는 '혼잡'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차별화된 조치가 이루어짐

지하철 혼잡도별 관리기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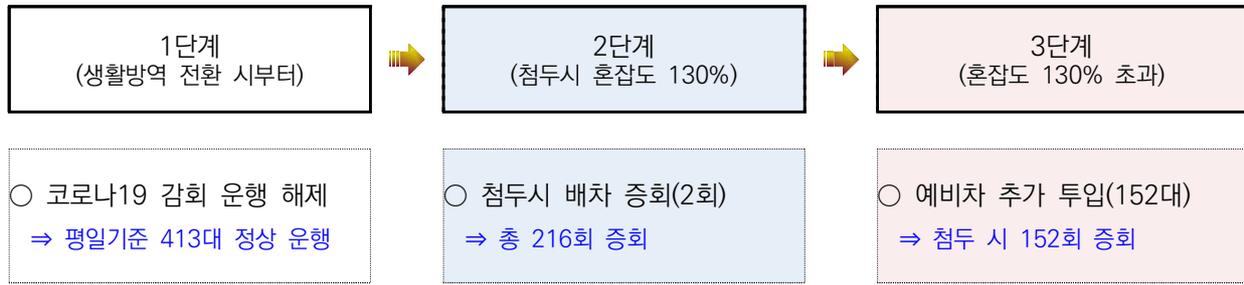
구 분 (혼잡도)	시민체감	관 리 내 용
여 유(파랑) 80% 이하	대부분 착석 통로는 여유	■ 안전요원 승강장 내 질서 유지
보 통(초록) 80~130%	여유롭게 이동	■ 안전요원 승객분산 유도
주 의(노랑) 130%~150%	이동시 부딪힘	■ 혼잡정보 제공, 승객분산 유도 ■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혼 잡1(빨강) 150~170%	열차 내 이동불가	■ 주의 수준 조치 ■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제한 ■ 출퇴근(RH)시 신조전동차(ATO) 집중투입, 배차간격 준수 ■ 비상대기 열차투입(13개 편성) 혼잡도 적극 관리
혼 잡2(빨강) 170% 이상		■ 혼잡1 수준 조치 · 마스크 미착용 시 승차 제한 ■ 주요 혼잡역사 지원근무, 출입게이트 앞 안내 및 통제 ■ 주요 혼잡구간 무정차 통과(역·관제·기관사 판단)

- ▲여유 단계(80% 이하) 및 보통 단계(80~130%)는 여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상황으로 안전요원을 투입하여 승강장 내 질서 유지 및 승객분산을 유도하고, ▲주의 단계(130~150%)는 이동시 불편한 정도로, 승객분산 유도와 더불어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함
 - * 특히, 강남·홍대입구·신도림·고속터미널 등 주요 혼잡역(10개역)과 환승역(10개역) 승강장에는 6월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해 승객들이 승차 대기선과 안전거리를 지키며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임
- ▲혼잡 단계(150% 이상)는 열차 내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실질적 위험수준으로 판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계획임
- 안내방송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고 미착용시 역무원이 개찰구 진입을 제한하고, 마스크 미소지 승객을 위해 덴탈마스크를 전 역사의 자판기(448개소), 통합판매점(118개소), 편의점(157개소) 등에서 구매(시중가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임
 - * 이와 관련하여 여객운송약관 중 승차거부 규정(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 등)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관련 사항을 추가할 예정임
- 아울러 출퇴근시간에 추가 전동차를 투입해 혼잡도를 낮출 계획임. 혼잡도가 높은 노선(2, 4, 7호선)은 열차를 증회운행하고 그 외 노선들은 비상대기 열차를 배치하여 혼잡상황 발생시 즉시 투입할 예정
 - * 특히 2호선은 혼잡시간대 ATO(Auto Train Operation) 전동차 12편성을 집중 배치해 운행간격 단축을 통한 혼잡도 관리를 시행함
- ▲혼잡도 170% 이상이 되면 안내요원의 탑승 통제와 역·관제·기관사 판단 하에 혼잡구간 무정차 통과도 가능토록 함
- 특히 방송·SNS 등 각종 매체, 지하철 역사 및 열차 안내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시간대별, 호선별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혼잡도 사전예보제>도 시행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이용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
 - * 기존 혼잡 데이터 및 최근 추세를 기반으로 시간대별, 호선별 혼잡 예상치를 도출하고 이를 주간, 일간단위로 승객에게 제공할 계획임
 - * 주간 단위 혼잡도 정보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등), 포털 사이트,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앱(또타 지하철) 등을 통해 제공하고 일 단위 정보도 TV·라디오 방송, 포털 사이트,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앱(또타 지하철) 및 역사 및 열차 안내방송으로 제공함
 - * 이를 통해 혼잡시간대를 피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 수가 늘어나고, 혼잡도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버스 BIT(버스 정보 안내단말기) 통한 혼잡도 정보제공, 승객 분산 유도]

- 버스도 혼잡노선의 승객 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증회 운행, 예비차 추가 투입 등 상황별 혼잡도 완화 대책을 시행하여 전염병 확산 위험을 사전 차단할 계획임

- ▲1단계로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는 5월 13일(수)부터 감회운행중인 차량 413대(평일기준)를 정상 운행하고, ▲2 단계로 혼잡도 130%(재차 60명/승차정원 46명) 초과 노선에 대하여는 배차간격을 탄력적으로 조정·증회(216회)함
- ▲2단계 실시 후에도 혼잡도 130% 초과노선 발생 시 3단계로 예비차(첨두시 152회 증가)를 추가 투입할 예정임



- 마을버스도 자치구와 협력하여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혼잡 기준(130%)이상 혼잡 발생 노선은 증회 및 차량 증차 등 단계적 혼잡도 완화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며, 조치가 미흡할 경우 시내버스 추가 투입도 강구하기로 했음
- 또한 버스 승객이 실시간으로 차량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함. 혼잡노선에 대한 승차를 자제하도록 BIT(버스 정보 안내단말기)를 통한 안내문이 표출되며, 토피스 앱, 버스도착정보 홈페이지(bus.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 현재 BIT 안내문에 재차인원 45명 이상 시 '혼잡'으로 표기하고 있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실천 가능한 수준인 35명 내외로 조정할 예정임
- 아울러, 비상 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전고지 후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토록 버스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옆자리 비워두기, 대화통화 자제, 감염병 고위험군 출퇴근시간대 이용 자제 등 시민들이 감염예방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함

[방역 수준은 “심각단계” 유지…차량 내, 시민 이용 시설 등 집중방역]

- 서울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더라도 안전한 대중교통이 되도록 방역은 변함없이 심각단계 수준을 계속 유지해, 강화된 방역을 지속 실시함
 - * 지하철은 이용객 증가 대비 상시 방역체계를 확보하여, 열차 내 손잡이, 지주대 등은 입고 시마다 방역소독하고, 역사 내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은 일 2회 이상 철저히 방역소독을 실시함
 - * 버스도 방역 매뉴얼에 따라 강화된 방역 소독을 지속 시행하여, 차량 내부 손잡이, 의자 등은 매 회차 시 마다 방역소독하고, 승차대 구조물, 의자, 노선도 등 시민접촉시설도 주1회 방역소독을 실시함
 - * 아울러, 운송기관별 생활방역 책임자(지하철 운영기관은 안전총괄본부장, 지하철역사는 역장, 버스회사는 임원급 이상)을 지정하여 직원, 시설물, 승객에 대한 생활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
- 다만, 대중교통 이용시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사전에 제공되는 혼잡시간·혼잡노선 정보에 따라 혼잡시간을 피하고, 다음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저질환자 등 감염병 고위험군은 혼잡시간대의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는 등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 10대 수칙’을 마련하여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자발적인 시민 문화로 확산시킬 계획임
-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쓰기, 차량 혼잡시간 피하기, 옆자리 비워두기, 발열·기침 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기 등 혼잡도 감소와 대중교통 에티켓 준수를 위한 더욱 장기적인 관점의 생활 수칙임
 - * 10대 수칙은 지하철 및 버스 안내방송, 행선표시기 표출, 정류소 BIT 표출,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내할 예정임

생활 속 거리두기 대중교통 이용 10대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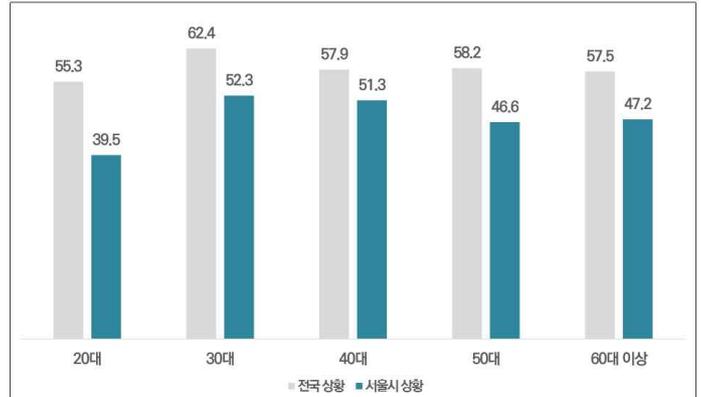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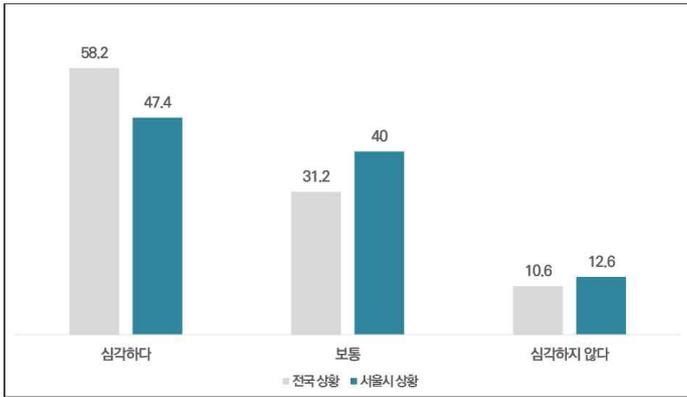
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쓰기	② 대중교통 이용 시 기침 예절 준수하기
③ 손 소독제 사용하기	④ 차량 혼잡 시간 피하기, 다음 차량 이용하기
⑤ 옆자리 비워두기	⑥ 차량 대기 중 승객 간 거리 두기
⑦ 승·하차 시 거리 두기	⑧ 통화나 대화하지 않기
⑨ 자주 환기하기	⑩ 발열·기침 시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기

- 서울시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된 이후에도 빈틈없는 방역 체계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대중교통 혼잡도 역

시 철저히 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시차출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서울시민 코로나19 경각심 30~40대 가장 높아...76.5% 서울사시장 대응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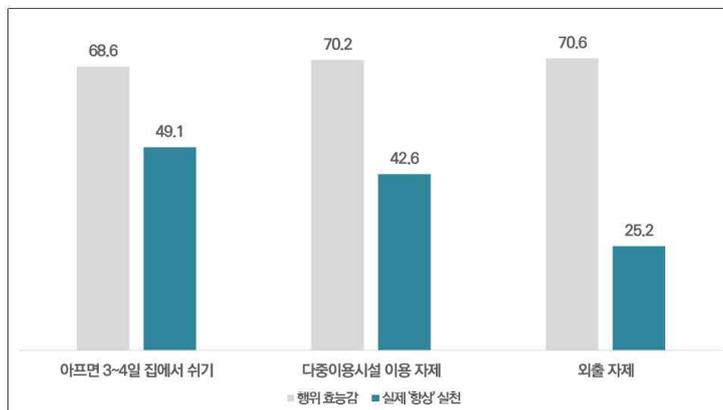
- 서울연구원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와 공동으로 지난 4월 28일~5월 1일까지, 서울시민 813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코로나19 위험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전국과 서울을 나누어 각각 질문한 결과 서울시민은 전국적인 상황에 비해 서울시의 코로나19 사태 심각성을 약 10%p정도 낮게 보고 있었고, 이런 경향은 20대에게서 두드러졌음



전국/서울시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보통제외)

전국/서울시 코로나19 사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연령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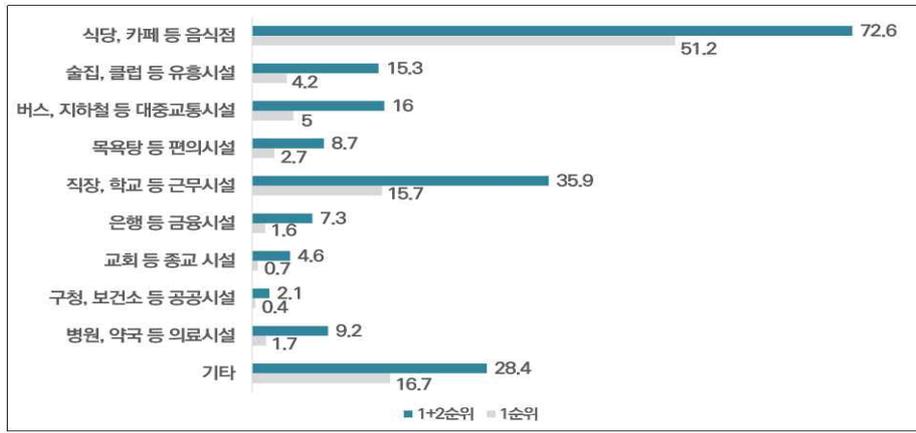
- ‘생활 속 방역 지침의 확보와 실천에 있어 개인과 사회의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 불편을 감수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새로운 일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5.2%로, 높은 수용 의향을 보였으며, 이는 지난 4월 12일 실시한 전국 조사 결과인 72.1%보다 높은 수준임
- 최근 발표된 생활방역 개인 지침의 핵심인 ‘아프면 3~4일 집에서 쉬다’의 경우, 그런 행위가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인 효능감 문항에 “그렇다”는 응답은 68.6%인데 비해 “실제로 ‘항상’ 그렇게 한다”는 답변은 49.1%로 차이가 있음
- ‘외출자제’의 경우, 그런 실천이 감염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은 70%였으나 이를 실제로 항상 실천한다는 응답은 25.2%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음
- 서울시민들의 감염예방 행동이 도움이 된다는 믿음(효능감)과 실제 실천 간 격차를 통해 생활방역 체제 대비의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음



생활방역 개인 지침에 대한 믿음(효능감)과 실제 ‘항상’ 실천을 비교

- 조사시점 기준 지난 일주일 동안, 자신과 상대 모두 마스크 없이 대화했거나 만난 경우가 가장 빈번했던 장소 1순위는 ‘식당, 카페 등 음식점’ (51.2%)이었으며 ‘직장학교 등 근무시설’ (15.7%), ‘대중교통시설’(5%), ‘유흥시설’(4.2%) 순으로 나타났음

- 이용자가 많은 곳, 또는 주요 생활권을 기반으로 마스크 쓰기와 물리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알리고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함



자신과 상대 모두 마스크 없이 대화했거나 만난 경우가 가장 빈번했던 장소

[병원진료 필요했으나 받지 않았다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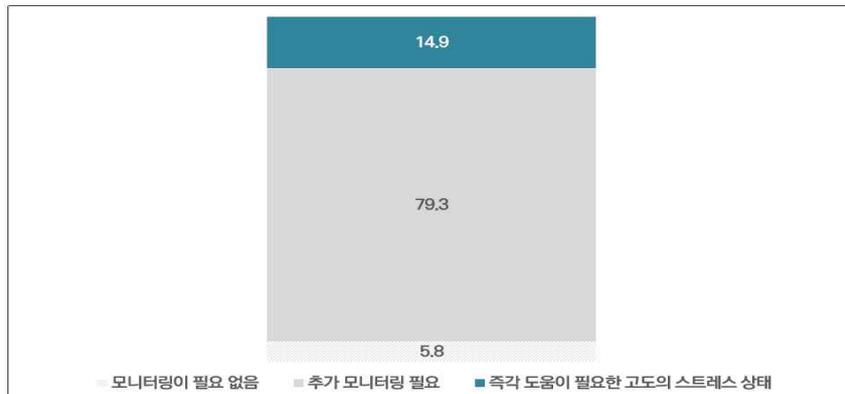
- 한편 코로나19 유행 이후, “병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받지 않았거나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4%였고, ‘병원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62.4%)’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혔으며, ‘병원에서 다음에 오라는 권유를 받아서(10.1%)’가 그 다음 답변으로 나타났음

- 설문조사를 진행한 손창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기존에 병원을 이용하던 환자들, 특히 필수적이고 즉각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의 의료서비스 보장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도 만성질환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원격의료와 같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즉각 도움 필요’ 14.9%, 추가 모니터링 필요 79.3%]

- 이번 조사에서는 신종감염병 비상사태 장기화가 초래할 수 있는 마음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진단도 시도됐으며, ‘외상 직후 스트레스 측정도구(PDI·peritraumatic distress inventory)’를 사용,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난적 스트레스 수준을 진단하였음

- * 13개 원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고 제시된 절단값을 적용한 결과,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7점 이하) 집단’은 5.8%에 그쳤음
- * 14.9%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 (28점 이상)’에 해당했고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집단 (7점~28점)’은 79.3%나 되었음



코로나19 트라우마 스트레스 집단

- 이어서 이 13개 문항 점수와 우울감(‘코로나19로 실제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확인되어, 재난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실제로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이에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는 바이러스에 맞서 매일 싸워온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코로나19 사태로 마모된 국민과 시민의 마음회복을 생활방역의 핵심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서울시장 대응 신뢰 76.5%, 코로나19 경험 서울에 새로운 기회 67.7%]

- 서울시민의 76.5%는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공적 대응에 신뢰를 나타냈고, 서울시민의 66.9%는 서울시와 시의 민간 의료인·의료기관, 서울시민 전체를 포괄하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대답했음
- 또한 서울시민의 67.7%는 코로나19 경험이 서울시에 새로운 기회를 안겨줄 것이라고 답했으며, 54.7%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서울시가 세계 도시의 리더로 도약할 것이라고 답했음
- 앞으로 서울시의 코로나19 소통에서 다뤄주기 바라는 정보로는 '취약층 보호 및 생계지원 방안'이 24.8%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민을 위한 구체적 지침과 노하우(22.1%), 서울시 현장의료진 안전과 건강(18.6%) 순으로 나타났음

[코로나19 회복과 지원 과제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이 1순위]

- 서울시의 코로나19 회복과 지원 사업에 관한 장기과제로는 경제 회복·지원 영역에서 '침체된 서울시 지역경제 회복·지원'과 '서울시민 고용 지원'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역학조사 협조 등 시민교육 강화'와 '심리방역(재난심리지원) 강화'가, 마지막으로 감염예방 영역에서 '서울시 방역체계 고도화'와 '서울시 의료체계 공공성 강화'가 각각 상위 2순위 과제로 꼽혔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서울시가 유념할 키워드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를 질문한 결과, 제시된 12개 단어* 중에서 상위 5개 키워드는 '안전' 31.7%, '예방' 24.2%, '방역' 18.2%, '건강' 7.5%, '안심' 7%순으로 나타났고, 1순위와 2순위를 합산할 경우, 예방, 안전, 방역, 건강, 안심 순이었음
- * 12개 단어: 안전, 건강, 안심, 생명, 보호, 회복, 방역, 예방, 과학, 성장, 공정, 학습

※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연구원이 기획하였으며, 서울대학교 유명순 교수가 설문조사를 설계하였고, 유명순 교수와 손창우 연구위원이 데이터를 분석하였음.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 813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를 실시하였으며, 권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음.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집오차는 ±3.1%p임

● 서울시민 '시 재난긴급생활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둘 다 받는다...11일 접수개시

- 서울시가 정부-지자체와 함께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를 11일(월) 시작함 (방문 신청은 18일(월) 시작)
- *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전 가구가 40만 원(1인가구)~100만 원(4인가구 이상)을 받게 됨
- 서울시민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전 가구)을 둘 다 받을 수 있으며 4인가구의 경우 최대 144만 원을 받게 됨

가구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금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이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 10% 추가)	30만 원 (33만 원)	30만 원 (33만 원)	40만 원 (44만 원)	40만 원 (44만 원)	50만 원 (55만 원)
모두 수령시 (서울사랑상품권 선택시)	70만 원 (73만 원)	90만 원 (93만 원)	120만 원 (124만 원)	140만 원 (144만 원)	150만 원 (155만 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충전 방식)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직접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신속하게 지급됨
-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에 따라 신청 방식도 다름. '신용체크카드'는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해당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해당 카드에 금액이 충전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이 가능한 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메리트리 등)이나,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하면 됨
- * '선불카드'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즉시 수령해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 및 신청

지급방식	신용·체크카드(충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제로페이)	선불카드(직접 수령)
	온라인	방문	온라인	방문
신청방법	9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 연계은행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한 앱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5.11.(월)~	5.18.(월)~	5.18.(월)~	5.18.(월)~
사용처	서울시 전역		서울시 전역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해당 자치구)	서울시 전역
비고	- 백화점·유흥주점·대형마트 결제 불가, 온라인 사용 제한 - 대상가구 세대주 신청 원칙 (선불카드만 일부 예외)			

- 어떤 형태로 받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회수됨
 - * 서울사랑상품권(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와 달리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함
 - *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백화점, 유흥주점,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온라인 결제도 제한됨
- 서울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앞두고 다양한 신청방법과 절차, 사용시 유의사항,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의 중복지급 여부 등 지급계획을 자세히 안내함
- 우선 11일(월)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됨. 신청 첫 주 평일(5.11.~15.)은 서울시 긴급재난생활비와 동일하게 ‘5부제’가 적용돼 대상가구 세대주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 가능하고, 주말인 16일(토)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누구나, 언제나 신청할 수 있음
 - *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 충전을 원하는 경우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됨
 - * ‘서울사랑상품권’은 5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음. 기존 상품권과는 다르게 “선물하기” 기능은 이용할 수 없지만, 지원금 신청 후 가족들과 함께 받기를 등록하면 금액을 나눠서 받을 수도 있으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시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지급 정지 또는 처벌받을 수 있음
- 18일(월)부터는 현장신청도 병행하고, 온라인 신청과 동일하게 ‘5부제’를 시행함
 - * ‘선불카드’는 세대주가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즉시 발급됨.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원이 세대주의 신분증과 함께 위임장을 작성하여 동주민센터로 대신 방문해 신청하면 됨
 - *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가 사용 중인 카드를 지참하고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됨. 특히 서울시금고 은행인 신한우리은행에서는 체크카드 신규발급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음
- 한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를 원하는 가구는 신청 단계에서 일부 혹은 전부 기부할 수 있고,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동주민센터, 서울사랑상품권(제로페이) 등 모든 신청 단계에서 만 원 단위로 기부금을 등록할 수 있으며 기부된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활용됨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유의사항

- ① 모든 신청은 5부제 적용,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 및 서울사랑상품권)은 5.16일부터 5부제 해제
- ② 세대주 신청이 원칙, 다만, 위임장 작성 시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세대원 신청 가능
- ③ 신용·체크카드 없어도, 가까운 신한·우리은행 창구 방문 시 신규발급과 함께 신청 가능
- ④ 서울사랑상품권,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신청 후 가족들과 함께 나눠쓰기 등록 가능
- ⑤ 모든 신청 수단에는 만원단위로 기부금 신청 가능, 「고용보험기금」으로 전달

● 이태원 관련 감염확산에 따른 등교수업 일정 조정

- 교육부는 고등학교 3학년의 등교수업 시작일을 5월 13일(수)에서 5월 20일(수)로 1주일 연기하고, 그 외 학년의 등교수업 일정도 1주일 순연한다고 밝혔음
- 교육부는 지난 5월 4일, 학생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한 등교수업 시기·방법(안)을 발표하면서, ‘감염 증 상황을 예의주시해 조금이라도 등교수업이 어려울 경우,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 후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최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감염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86명(5.11.기준)으로 이 가운데 이태원 클럽에 방문해 확진된 경우가 63명, 가족, 지인, 동료 등 2차 접촉자에게 발생한 경우가 23명으로 파악되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임
 - * (서울) 51, (경기) 21, (인천) 7, (충북) 5, (부산) 1, (제주) 1
- 또한, 서울시에서 파악한 연휴 기간 중 해당 클럽 방문자 5,517명 가운데 역학 조사는 44%(2,456명)만 진행돼 감염병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확진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17개 시도 중 6~8개 시도에 달해 감염증의 지역적 파급도 광범위함
- 교육부는 지역감염 위험도 등 감염 추이와 통제·관리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태원 방문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부터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당국 및 중대본과 긴밀히 협의하였으며,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 등 교육현장과도 소통해왔음
 - * 특히,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각 지역으로 노출자가 분산되었고, 위험도 검사를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높은 지역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하면, 5월 연휴 이후 최소 2주 경과가 필요하여 고3 등교수업을 연기하기로 결정하였음
- 고교 3학년 이외 유초중고의 등교 일정과 방법은 1주일 연기를 원칙으로 하되, 향후 역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소재 유흥업소(클럽, 주점 등)를 방문했거나, 확진자와 이동 동선이 겹치는 학교 구성원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가까운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음
 - * 또한, 방문 또는 접촉 사실을 숨기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방역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음
- 교육부는 “이번 이태원 감염 확산은 감염경로가 불투명하고 지역감염 정도가 심해 5월 4일 등교수업 일정 때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하며, “학생 안전과 학습권 보호 모두를 지키기 위해 교육부와 방역당국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며, 학교 현장의 의견도 경청하겠다.”라고 밝혔음

●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

-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서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및 방역 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서울시]

- 지난 5월 6일 이태원 클럽 등을 방문한 확진 환자가 처음 발생한 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방문한 7개 시설의 방역조치를 완료하였음
-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소재 5개 클럽의 출입명부와 CCTV 자료를 확보하여 방문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음
 - * 5월 10일 18시까지 클럽 방문 인원 5,517명 중 2,405명과 통화하였고, 3,112명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 등 인근 업소를 방문한 사람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인 경우에도 능동 감시하도록 하고 있음
 - * 특히 5월 1일 22시부터 5월 2일 4시까지 3개 클럽(킹, 퀸 트렁크) 방문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5월 7일부터 서울시는 즉각대응반을 파견하고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 자치구별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문자를 2회 발송하여 외출 자제 및 진단검사 등을 안내하였음
 - * 앞으로도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임
- 한편 서울시는 5월 9일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관내 2,060여 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하였고, 서울시, 자치구,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301명을 동원하여 집합 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 * 서울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며,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다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인천시]

- 인천시는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을 방문한 사람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대인 접촉을 금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또한 5월 10일 20시부터 관내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와 콜라텍에 대하여 2주 동안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실시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며, 감염 확산 시 방역비용 등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또한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신규 환자와 신입 종사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입원과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경기도]

- 경기도는 6개 이태원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을 방문한 관내 주민에 대하여 무료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5월 10일부터는 대인 접촉 금지를 명령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역학조사에 응할 것 등을 안내하고 있음
- 또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성남시 의료원과 티맥스 등 직장 동료에 대해서도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음
- 경기도는 5월 10일부터 관내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5,730여 개 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명령서와 고지문을 업소에 부착하도록 하였고, 위반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임
 - * 한편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는 경기도 및 관내 시군, 관할 경찰서 합동으로 35개반 215명을 구성하여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자택에 머무르며 보건소나 1339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주시는 등 방역당국의 조치 사항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는 엄격히 보호되고 존중될 것이라고 밝혔음

● 등교 수업 대비 학교 방역 관리 상황

- 교육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5월 7일에 「유·초·중등학교 학교방역 안내 지침」을 개정하여 배포하였음
- 이 지침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의 학교 유입 방지, ▲학교 교육활동 중 학생 관리, ▲확진자 발생 시 대응체계 마련 등 학교 방역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 코로나19의 학교 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교 1주일 전부터 가정 내에서 매일 아침 설문조사 형식으로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학생·동거인의 최근 14일간 해외 여행력을 포함한 감염 개연성 등의 정보를 학교에 통보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가동함
 - * 5월 13일 등교 수업 대상인 고3 학생들의 경우에는 5월 7일부터 적용하고 있음
- 등교 시에도 입실 전, 일과 중 하루 최소 2회 이상의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매 수업시간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및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할 계획임
 - * 교육 활동 중에는 충분한 개인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책상 및 물품 재배치, 수시로 일상 소독을 위한 비품 구비 등을 하여야 함
- 학생 및 교직원 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에서 진료 및 진단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귀가 조치되고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함
 - * 확진자는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가 중지되며,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 및 자가격리 학생은 14일간 등교가 중지되고, 이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 처리가 됨
- 또한 등교 전까지 방역 조치 지침을 보완하고, 학교 방역 현장점검과 필요한 자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요양·정신병원에 진단검사 확대 적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주요 취약집단과 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확대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음
- 지난 2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 사례 정의에 의한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대하여 건강보험과 정부 예산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도 검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하였음
 - * 기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입원 시 검사 1회에 대해 50%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
 - * (기존) 8~16만 원 전액 본인 부담 → (개선) 약 4만 원 본인부담 (50%)
- 이 사항은 5월 13일부터 적용되어 별도 안내 시까지 지속되며, 향후 코로나19 유행상황을 지켜보며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요양병원에는 하루 평균 1,694명이 입원하고 있으며('19. 기준), 이번 조치를 통해 하루 약 2,000명의 환자가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대한 진단검사 확대를 통하여, 지역 사회 내 어르신에 대한 코로나 19 모니터링과 감시가 강화되는 한편, 병원 감염 유입 차단과 코로나19 확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아동돌봄쿠폰으로 코로나19로 타격입은 동네 상권에 활력 불어 넣어**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3일 첫 지급을 시작한 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의 약 보름 동안(4.13.~4.30.) 실제 사용처가 대부분 동네마트, 일반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받은 업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이는 4월 13일 아동돌봄쿠폰을 받은 183만 명의 보호자(아동 수 기준 약 236만 명)가 4월 30일까지 소비한 업종을 8개 카드사로부터 회신받아 분석한 결과임
 - * (대상) '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 지급 가구, (지원) 아동 1인당 40만 원, (예산) 1.05조 원
 - *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8개 주요 카드사, 비씨카드는 13개 참여 은행사를 포함



- (사용 현황) 4월 13일 지급한 돌봄포인트 9,445억 원의 43.5%인 약 4,100억 원을 지역에서 직접 소비한 것으로 파악됨
 - * 이는 일주일에 지급 포인트의 약 20%를 사용하는 것임
- (주요 소비처) 쿠폰 소비처는 ①동네마트(1,559억 원, 37.9%), ②일반음식점(697억 원, 16.9%), ③의류·잡화(356억 원, 8.7%), ④병원·약국(351억 원, 8.5%) 등 4개 분야가 전체 소비의 72%(2,963억 원)로 나타났음
- 이 외에도 지역에 있는 주유소, 커피숍, 이·미용, 여가 및 레저, 베이커리, 학원 등이 주요 사용처로 분석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소비 업종 상위 10개 현황(단위: 억 원, %)

순위	업종	소비액	비중	순위	업종	소비액	비중
	계	4,113	100.0				
1	동네마트(편의점 등)	1,559	37.9	6	커피전문점	115	2.8
2	일반음식점	697	16.9	7	뷰티(이·미용)·헬스	111	2.7
3	의류·잡화	356	8.7	8	여가·레저	103	2.5
4	병원·약국	351	8.5	9	베이커리	102	2.5
5	주유	124	3.0	10	학원	93	2.3

- 시도별로 보면 제주(54.0%), 세종(53.3%), 강원(52.0%)는 배정액 대비 50% 이상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37.1%), 부산(37.9%), 경기(41.8%) 등에서도 대부분 약 40% 수준에서 소비하고 있음

사도별 소비성향 분석(단위: 억 원, %)

시도	배정 (A)	소비 (B)	B/A	시도	배정 (A)	소비 (B)	B/A	시도	배정 (A)	소비 (B)	B/A			
계	9,445	4,113	43.5	6	대전	293	142	48.5	12	충남	330	158	47.9	
1	서울	1,568	581	37.1	7	울산	254	116	45.7	13	전북	301	148	49.2
2	부산	580	220	37.9	8	세종	120	64	53.3	14	전남	289	150	51.9
3	대구	451	190	42.1	9	경기	2,641	1104	41.8	15	경북	410	191	46.6
4	인천	579	252	43.5	10	강원	204	106	52.0	16	경남	662	307	46.4
5	광주	300	147	49.0	11	충북	313	156	49.8	17	제주	150	81	54.0

-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통한 소비 진작은 코로나 19로 지역 경제의 타격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 사업장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분석되었음
-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소비 위축은 동네마트, 일반음식점, 의류소매업, 병의원, 이·미용, 여가 및 레저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
 - *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97.9%가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응답 (2월 말)
 - * (중소기업중앙회) 전체기업의 76.2%가 매출 감소 및 자금 압박 경험, 주요 피해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섬유제품업, 개인서비스업, 여가서비스업 등(비제조업 647개를 포함한 1,234개 업체 설문조사, 4.10~23일)
- 아울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됨
 - * (3월 고용동향, 전년 동월 대비) ▲도매 및 소매업(-4.6%, -16.8만 명), ▲숙박 및 음식점업(-4.9%, -10.9만 명) 등
- 이러한 최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아동돌봄쿠폰의 빠른 소비는 동네마트 등 주요 소매업, 음식점업, 의류소매업, 여가서비스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과 고용 유지에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아동돌봄쿠폰은 온라인 육아 커뮤니티 등에서 신청 없이도 지급, 넓은 사용 범위, 문자 서비스, 가맹점 확인 불필요 등 편의성 측면에 대해 좋은 평가가 있었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아동돌봄쿠폰이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등 정책 취지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음

일자	국내 발생(명)	정부	서울시
'20.01.03.	-	·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가동 - 우한시 발 항공편 입국자 검역 강화 - 중국 보건당국,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 우한 방문 또는 체류자 발열, 호흡기증상 시 1339 신고 당부	
'20.01.08.	-	· 국내 조사대상 첫 유증상자 발생 - 중국 국적 36세 여성 1명, 유증상자 분류되어 격리, 치료, 검사 실시 - 접촉자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 시작(29명)	
'20.01.11.	-	· 첫 유증상자 PCR 검사 결과 음성 - 유증상자 및 접촉자 모니터링 종료	-
'20.01.13.	-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분석·검사법 개발 착수	
'20.01.16.	-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대응 강화 - 중국 우한시 방문자 중 14일 이내 유증상자 신속한 사례분류, 진단검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절차(3판)' 배포('20.1.17.) - 각 시·도 대책반 구성, 설 연휴 비상방역근무체계 가동 -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PCR 검사 이관, 지역별 신속검사 가능하도록 계획	
stage 1 중국 유입,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20.01.20.	확진:1(+1)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확진환자 발생 - 35세 여성(중국국적) 인천공항 검역과정 발열 등 유증상	· 서울시 확진자 최초발생 ※ 공식자료 기반 후향적 확진일자 재추정
'20.01.23.	확진:1(-) 확진:1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주의' 단계로 상향	
'20.01.24.	확진:2(+1) ※미발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두 번째 확진자 확인 -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근무자(55세, 한국인 남성), 김포공항 검역과정 유증상 확인 · WHO 긴급위원회 "아직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 아니야"	· 서울시 '신종 코로나 방역대책 반 가동' 선언후 24시간 대응
'20.01.26.	확진:3(+1) ※미발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세 번째 확진자 확인 - 후베이성 우한시로부터 입국한 한국인(54세 남성), 1.20. 귀국 · 질병관리본부, 중국 전역 검역대상 오염지역 지정, 사례정의 확대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사례정의 확대로 격리 및 감시대상자 큰 폭 증가	-
'20.01.27.	확진:4(+1) ※미발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 번째 확진자 확인 -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후 귀국, 55세 남자 한국인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격상 · 보건복지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으로 기능 전환	-
'20.01.28.	확진:4(-) ※미발표	· 최근 14일내 중국 우한 입국자 전수조사 실시 ·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대응체계 강화 -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추가 확대(1.28. 현재 288개 운영) - 1339 상담센터 상담 인력(27명→170명) 추가 확보 - 감염병관리병상 추가 확보 계획 수립(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 병원, 161 병실) - 민간의료기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가능 하도록 기술과 자료 제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어린이집 등 대응요령 배포 · WHO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험 수위 '보통→높음'으로 조정	· 보건소(25개), 시립병원(4개) 선별진료소 운영 · 격리병상 7개 상시 가동 준비 · 중국동포 밀집지역 임시 신고·지정 센터 지정 · 예방 등 시민 집중 홍보 안내 강화
'20.01.30.	확진:6(+2) 확진: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환자 2명 확인, 첫 2차 감염 사례 발생 - 우한 방문 후 귀국(32세 남자 한국인), 세 번째 확진자 접촉자(56세 남자 한국인) ·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 개최 - 검역인력 확충, 보건소 기능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 격리 시 보상 등 범부처 총력 대응 · 민간 협력으로 진단 빠른 '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 구축·검증·평가 완료 - real time RT-PCR, 1회 검사로 확진, 6시간 이내 결과 확인 가능 - 1.31.부터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실시 · 의료기관 DUR, ITS를 통한 환자 해외 여행력 확인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 중국 우한시 입국자 208명 전수 조사 진행 · 관광 위기관리TF 체계 구성 · 서울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 매일 유튜브 생방송 실시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이송지 원반 확대 운영
'20.01.31.	확진:11(+5) ※미발표	· 우한교민 368명 1차 입국 , 유증상 18명 · 질병관리본부 확진자 역학조사 경과발표, 접촉자 자기격리 및 심층조사 시행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잠정기준" 안내 · 보건소 선별진료서 이동형 X-ray 장비 구매 188억원 지원 · 중앙사고수습본부, 확진자의 확인되지 않은 개인정보 확산 사건 수사 의뢰 · WHO 현지시각 1.30. " 국제보건위기상황 " 선포	· 선별진료소 58개소 확대 - 시립병원 4개소 추가 - 서울의료원 응급실 유증상 전용응급실로 전환 - 이동 선별진료소 7개 설치 지원 · 역학조사단 4→11명 확대 · 검사가능 강화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01.	확진: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관계부처 합동 확대 개편 - 중국 유학생, 여행자, 근로자 등 관련 방역 관리방안 범부처적 안건 논의 · 우한교민 333명 2차 입국, 유증상자 7명, 국립의료원 이송 ·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하는 고시가 법제처 검토 완료 	
	※미발표		
'20.02.02.	확진:1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국 선별진료소 288개→532개로 대폭 확대 · 1339 상담인력 (1.31.)38명→126명(2.1.)→188(2.4.) 계획 · 우한입국 교민 총 701명 검체 채취 검사, 1차 입국자 1명 확진 - 경찰인재개발원(아산)에 520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에 156명 입소 - 입국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종료 후 한 차례 더 진단검사 시행 	
	※미발표		
'20.02.03.	확진: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차관→장관)주재로 격상 ·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조치(2.4.0시부터) · 제주 무사증입국제도 일시 중단 · 중국 전용 입국장 별도 설치, 특별입국절차 진행 - 특별입국절차: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거주지, 실연력처 확인 후 입국 허용 · 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구분 폐지,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 조치 · 중국 유입 추정 9명, 일본 확진자 접촉 1명, 국내 2차 감염 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 기금 자금 5,000억원 지원 - 금리 0.5%p인하 등 - 관광객 집중지역 방역소독 · 대외협력기금 2억원 지원 - 우한교민 격리 주변 지역 의약품 지원
	※미발표		
'20.02.04.	확진: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의료기관까지 검사 확대 - 지역사회 확산 방지, 조기 진단위해 2.7.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 1339, 129, 공단 상담센터 등 유관기관 포함 총 596명 상담 배치 · 우한지역 입국자 명단 서울시 송부, 소재 및 위치 파악 전수조사 협업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 배포 - 중국 전 지역 다녀온 직원 및 이용자 14일간 업무 배제, 등원 중단 권고 - 전 부처의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 16번째 환자, 태국 여행 후 확진(태국 정부 확진자 관련 자료 공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버스, 택시 감염 예방 본격 돌입 - 대중교통 대대적 방역 · DDP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 - 방역 매주 실시 - 열화상 카메라, 세정제 등 배치
	※미발표		
'20.02.05.	확진:19(+3) 완치: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번째 환자, 확진자 중 처음 퇴원 · 질병관리본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바이러스 분리 성공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국 분리주 이름: BetaCoV/Korea/KCDC03/2020 - 유전정보 공개, 백신·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 · 국립보건연구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치료제 및 백신개발 연구 착수 · 중앙사고수습본부 유관부처와 마스크 수급 대책 마련 · 국민 정보 제공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용 홈페이지 개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 ncov.mohw.go.kr - 일일 브리핑,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팩트 체크, 대응지침, 홍보자료 등 신속 제공 ·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일본 직원 사칭에 대한 수사 의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밀집지역 식료품업소 802곳 집중점검, 확산 차단 - 3개 시장 75명 투입, 선제적 점검 - 야생동물 등 취급여부 점검 - 1개 시장 방역·소독 실시
	확진:7		
'20.02.06.	확진:23(+4) 완치: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 임석 하에 본부장 주재로 코로나 대응 논의 · 마스크·손소독제 등 수급안정화 위해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 - 마스크·손소독제 생산, 도매업자 출하·판매시 정부 신고 의무 부여 · 정부, 민간후원 연계, 마스크 15만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후원 · 인천국제공항 검역 강화, 유증상자 4단계 고강도 검역체계 가동 - 검역조사→선별진료→시설격리→진단검사, 확장형 검역 시스템 최초 가동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례정의 확대(대응절차 5번 개정), 검사기관 확대 · 첫번째 확진자(35세 여자, 중국인),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131개 대학로 소극장, 71개 문화시설 특별방역 · 확진자 다중이용시설 이동 동선 지도 서비스 제공 준비 · 확산 방지 위한 개선방안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 7개 건의 5개 반영, 2개 추진중
	확진:10		
'20.02.07.	확진:24(+1) 완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 검사 대상 확대, 의사환자 검사비 지원 - 중국 방문 후 유증상자, 의사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되는자 - 확진자·의사환자로서 진단받은 경우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 · 선별진료소 556개소로 확대, 1일 검사 가능 건수 3천여건 정도 · 위험성 큰 집단 대상 우선순위 평가하여 검사대상 확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격무시설 2.8.부터 운영 - 자가격리자 중 독립생활 어려운자 대상 - 서울시 인재개발원 활용
	※미발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08.	확진:24(-) 완치: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사고수습본부 17개 시도와 확산 방지 대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시설·병상·인력 등 운영계획 논의 ·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 위해 법률 근거 관계부처 협의·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종감염병중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0,000원 지급 - 유급휴가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 지급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표준 소독 수행 지침, 각 부처와 지자체 배포 · 국내 초기 방역 신속 조치로 다수 경증, 전파 속도 메르스 비해 빠른 편 	
'20.02.09.	확진:27(+3) 완치:3(+1)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입국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자가진단 앱' 사용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0.~11. 시범운영, 2.12. 이후 시행 · 지자체 총력 동원 태세, 보건소 방역활동 집중 체계 구축 · 환자 조기발견 위한 진단검사 물량 대폭 확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월 말까지, 1일 만 건의 진단검사 가능하도록 확충 · 다수 환자 발생 대비 병상·인력 확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압)1차 국가지정 198 병상 활용→2차 공공병원 및 군병원, 일반 종합병원 활용 - (인력)10개 즉각대응팀→30개,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및 채용방식 개선 - (치료)국립중앙의료원 주관 "중앙임상TF", 표준적 치료방법 권고안 수립 	
'20.02.10.	확진:27(-) 완치:4(+1)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적 국내 크루즈선 입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루즈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336명 중 70명 양성(2.9. 기준) · 11번째 환자, 증상 호전, 검사 2회 연속 음성 확인, 퇴원 	· 자가격리자 8명, 서울시 인쇄 개발원 입소
'20.02.11.	확진:28(+1) 완치:4(-)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 홍콩·마카오 오염지역 지정, 검역 강화 밝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국 외 환자 발생 6세 지역, 여행 최소화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중국 후베이성 철수 권고(3단계), 그 외 중국 지역 여행자제(2단계) · 중국 외 감염 확인 국가 여행이력 정보 의료기관, 약국에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조회), ITS, DUR 통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신종코로나 8개 언어로 상담 안내 · 서울시, 공행버스 김화은행 승인
'20.02.12.	확진:28(-) 완치:7(+3) 확진:10 완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한교민 147명 3차 입국, 유증상자 5명 국립중앙의료원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간 임시 생활시설 국방어학원에 입소 ·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험 등 집단행사 개최 권고 지침 마련·시행 · 특별입국절차 적용지역 확대(홍콩, 마카오), 자가진단 앱 설치 · WHO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 "COVID-19" 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 코로나, VI:바이러스, D: 질환, 19: 2019 의미 · 3번째, 8번째, 17번째 환자 증상 호전 및 2회 검사 음성, 퇴원 · 국내 분리 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분양, 진단·치료·백신 개발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대처(검체) 조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동선 6개소 긴급점검 - 향후, 확진자 동선 내 다중 이용시설 조사 확대
'20.02.13.	확진:28(-) 완치:7(-)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지자체 중심의 자가격리 관리 강화, 격리시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일 15개 시·도 17개소 766실 → 2.12일 16개 시·도 19개소 864실 · 진단 시약 생산 확대, 검사기관 확충, 1일 5천명 수준 검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기관: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민간기관 46개 · 중앙임상TF, 코로나19 임상연구 기반 진료권고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에 생필품, 주거비, 생계비(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 피해 회복능가 지원 캠페인
'20.02.15.	확진:28(-) 완치:9(+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한교민 1차 입국자 366명(확진자 2명 제외) 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전 증상 발생 대처요령, 건강관리, 단기숙소 및 일자 등 교육 - 희망 지역에 따라 5개 권역별 분산하여 이동 예정 · 2.17.부터 입원·격리자들 생활비지원 및 유급휴가비 지원 접수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등 심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1.29.부터 심리지원 실시 - 국가·영남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의료기관 유선 상담, 고위험군 선별 치료 연계 · 7번째, 22번째 환자 증상 호전, 검사결과 2회 연속 음성,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 관광시장 조기 회복 중 합대책 발표 · 2.14. 코로나19 극복 위한 관광업계 간담회 개최
'20.02.16.	확진:30(+2) 완치:9(-)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확진자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유입사례(57.1%), 국내 감염사례(35.7%), 전파 경로 조사중(7.1%) - 임상 증상 경미 또는 비특이적, 발열, 인후통 호소가 각 32.1%로 가장 많음 - 입원 후 영상검사상 폐렴을 보인 환자는 64.3%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16.	확진:30(+2) 완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소견에 따른 진단검사 확대, 환자 조기발견, 사회 감시체계 구축 ·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취약시설(요양시설·병원) 보호 조치 강화 · 지자체 자가격리자 업무 전담관리, 접촉자 격리 시설 23개소, 872실 확대 · 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 계획 · 중국 입국 유학생 7만여 명 14일 자가격리 등 보호·관리 방안 논의 · 고용노동부, 사업장 방역 및 어려움 겪는 사업장 고용안정 적극 지원 	
	※미발표		
'20.02.17.	확진:30(-) 완치: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병원 대상 중국 등 여행력 있는 종사자·간병인 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470여 개 요양병원(2.17.~2.18.) 여행이력, 업무배제, 폐렴환자 여부 등 점검 · 호흡기 감염병 관련 감시체계,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감염 증 병원체 감시체계 코로나19 검사 추가 실시, 참여 기관 확대 ·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긴급 연구과제 공모 시작 ·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등, 대학 체계적 관리 지침 배포 · 한·일 보건부 장관, 코로나19 상호협력 다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 대환지원, 이송방안 협의 - 코로나19 양국 현황 및 방역대책 정보 공유, 향후 협력방안 논의 · 28번째 환자 완치하여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에 긴급혈액 나서 · 찾동 방문간호사, 복지플래너 총 3,208명 확산예방 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숙박업소 1,403개 전수조사 - 취약계층 수시 모니터링 - 취약계층 마스크, 세정제 전달, 감염예방 교육 실시 · 방역조사 안전 '클린존 마크'
	확진:12 완치:3		
stage 2_대구·경북 중심 지역사회 전파 확인			
'20.02.18.	확진:31(+1) 완치: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번째 환자 발생(59년생, 대구), 외국 방문 이력 없음 · 12번째, 14번째 환자 증상 호전으로 격리해제, 퇴원 · 전국 3만7000여 개소 어린이집에 방역물품 구입비 65억 6200만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마스크, 손소독제 구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 대응체제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클린시장 운영, 피해 기업 지원 등
	※미발표		
'20.02.19.	확진:51(+20) 완치:1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20명, 18명 대구·경북, 15명 31번째 확진자(신천지) 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진료소 거침없이 3차 의료시설 직행, 대구·경북 지역 내 다수 응급시설 폐쇄 - 당일 기점으로 국내 확진자 수 폭증 시작 · 코로나19에 따른 운영 어려움 의료기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메르스때도 시행한바 있으며, 청구확인만 거쳐 10일 이내 90% 조기 지급 · 일본 크루즈선 7명 이송, 14일간 임시생활시설 격리 생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국민 6명, 일본인 배우자 1명 총 7명 - 김포공항 검역 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 격리 생활 시작 ·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중소병원협회 등 6개 의료계 협조 요청 · 6번째, 10번째, 16번째, 18번째 환자 완치되어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확진자 첫 발생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공영차고지 방역소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관리 29개 공영차고지 내 주차장 주1회 소독 - 천만 시민과 운전자 감염 예방
	확진:13 완치:5		
'20.02.20.	확진:104(+53) 완치:16(-) 사망: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사망자(청도 대남병원 관련) 발생, 신규 확진자 대부분 대구·경북 지역 · 정부 대구시에 즉각대응팀 19명, 중앙사고수습본부 6명 등 현지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선별진료소 8개 추가(14→22개소), 공중보건의 24명 추가 배치 예정 · 지역사회 전파 확인, 진단기관 46개→77개 추가 확대 · 서울지역 확진자, 선별진료소 세차례 방문했으나 검사 거부 · 제주 지역 대구 휴가다녀온 군인 확진 판정 ·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6판), 0시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진 환자 의사·해외여행 경력 관계없이 의심될 경우 적극 검사 시행 ·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예방법에 따라 손실 보상 구체적 기준 등 심의·의결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피해 관광업계 대상 특별자금 지원 현장 설명회
	※미발표		
'20.02.21.	확진:204(+100) 완치:17(+1) 사망: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최초 확진자 발생 · 대구·경북 지역 병상 확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음압 9개 병원 50병실 확보, 향후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 병상 확보 ·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코로나19 전수 검사 실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수행 민간 의료기관 4개소 추가 지정, 공중보건의 24명 추가 배치 · 청도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및 검사 실시 · 정부,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 참여 · 국립중앙의료원, 국군대전병원 등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 준비 · 대구지역 전체 학교, 3월 1주 개학연기 협의 완료 ·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성모병원 관련 서울시 확진자 최초 발생 · 서울시 인재개발원 내 코로나19 격리자 8명, 21일 퇴소 · 서울시, 의심증상 시민까지 확대하여 지역감염 차단 노력 · 간강추위계층 복지시설 방역관리 총력 · 중국입국 유학생 픽업·임시거주공간·모니터링 전방위 지원
	확진:19 완치:6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22.	확진:433(+229) 완치:18(+1) 사망: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역 신천지 신도 명단(약 9,336명) 모두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36명 중 1,261명(13.5%) 유증상 응답 - 2.7. 1차, 2.14. 2차 발병 추정, 종교 모임 내 지속 전파 시사 · 청도 대남병원 종사자 및 환자 전수조사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까지 256명 중 111명 확진(사망자 2명 포함, 의료진 9명, 환자 102명) 확인 	
'20.02.23.	확진:602(+169) 완치:18(-) 사망:6(+4)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전국 확산 가능 대비, 위기경보 단계, "경계→심각" 격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위기평가회의'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 발령 통해 적용 - 해외 유입차단, 환자 발견 및 접촉자 격리 정책,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 전략 추진 · 중앙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 본부장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로 격상 · 대구, 경북 청도 지역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집중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지역 최소 2주간 자율 외출 자제, 이동 제한, 증상자 신속 검사 - 빠른 치료 위한 전담병원 병상·인력 확보 계획 · 지역별 코로나19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환자 음압병상, 경증환자 전담병원 등 병상·인력 확보 계획 · 경주시 40대 남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일상 감염자 중 최초 사망 발생 · 서울 은평성모병원 사례 중심 조사 진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병원 내 2명의 확진자 발생 · 복지부 장관, 대구·경북 의료계 단체장과 긴급 간담회 개최 	
'20.02.24.	확진:833(+231) 완치:22(+4) 사망:8(+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도 대남병원 정신병원 한층 전원 확진판정(113명) · 서울 은평성모병원 간병인 근무자 확진 판정 · 대구, 경북지역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 적극 실시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4.09시 기준, 대구 지역 환자 446명, 경북지역 환자 186명 -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한 의료인 봉사자 모집 · 전국 모든 유·초·중등학교 개학 연기(3.1.→3.9.) · 개인정보 유출·확산 엄중 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7대 선제적 대응책 기동 ·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관리비 감면 · 코로나19 공공일자리 총 1,700개 참여자 모집 · 코로나19관련 서울시 인준판 리우원회 · 1회용품 한시적 사용 허용
'20.02.25.	확진:977(+144) 완치:22(-) 사망:11(+3)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지역 병상·인력, 선별진료소, 진단 검사 물량 지속 확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국 신천지 교회 신도 명단 협조 받기로 합의 · 코로나19로 운영상 어려움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 조기 지급 특례, 인력·시설 신고 유예, MRI 집중심사 시기 연기 등 ·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 지정 ·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폐쇄 병동 대상 실태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여행 이력, 업무 배제, 입원 환자 폐렴 증상 여부 등 · 국민, 고위험군, 유증상자, 코로나19 유행지역 관련 대국민 행동 수칙 배포 · 코로나19 총력 위한 공공 2부제 일시 중단 · 1회용품 규제 제외 적용, 지자체별 탄력적 운용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성모병원대책본부' 구성(총 40명, 전원 검사 및 병원 내 집중구역 등 감염 차단 조치 · 코로나19 관련 종교계 지도자 긴급회의 · 신천지예수교 267개소 점검 188개 폐쇄지역 집회금지 명령 · 확인불가 66개소 합동점검 · 재보 등을 통한 주·적 한동점점 폐쇄시설 집회·종교활동 적발 시 법적 조치 · 집회금지 위반 범투본 고발조치
'20.02.26.	확진:1,261(+284) 완치:24(+2) 사망:12(+1)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3.1.까지 전담병원 외 인근 지역병상 포함 총 1,600개 병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대기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병상 가동 가속화 방안 논의 · 대구 의료인 봉사자 현 205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등 40명 · 신천지 약 21만 2000명 전체 신도 명단 확보, 지자체와 전달 · 행사·다중이용시설·소독 등 지침 개정 및 시행 · 1차 '국민안심병원' 91개 의료기관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 환자 병원 방문·입원 모든 진료 과정, 다른 환자와 분리 진료 병원 - 4개 상급종합병원, 68개 종합병원, 19개 병원 신청 · 코로나19 밀접접촉 방지 위한 유연근무제 활용 · 전국 어린이집 휴원 실시(2.27.~3.8.) ·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 및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화 오늘부터 시행 · 경기도 고양시, 최초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검사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에 탄 채로 검사 받는 것으로, 10분 만에 검체 채취 완료 · 코로나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검사·입원 거부시 처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성모병원에 이어 서울지하철 병원 상계백병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 · 서울시,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도심내 집회 제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장소 서울역, 효자동삼거리까지 확대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2.27.	확진:1,766(+505) 완치:26(+2) 사망: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 “의미있는 변이 발견 못해” · 중앙임상위원회, 코로나19 중증도에 따른 효율적 의료자원 운영 필요 · 경북지역 음압병상 26개, 전남 총 811병상 확보 계획 · 대남병원 치료중인 정신질환자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송 · 대구시 의료기관 건강보험 선(先) 지급 특례 지원 시행 · 2.27. 기준 총 127개 ‘국민안심병원’ 지정 · 코로나 19 파견 의료인력 지원·운영 지침(안) 마련 · 국방부, 코로나19 의료 및 검역지원, 병상 및 시설 기여 등 동참 · 외교부, 우리 국민 입국 제한 또는 여행 제한 조치 외교력 적극 투입 대응 · 사회복지시설 휴관 권고 및 돌봄 공백 대응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확산대비 광화문세종대로 집회차막 철거 · 서울시, 종교시설 방역강화 위한 예산 긴급지원
	확진:59 완치:9		
'20.02.28.	확진:2,337(+571) 완치:27(+1) 사망: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관 협력 백신·치료 개발 추진 ·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 모범사례 표준운영모형 마련 · 신천지 전체 국내 신도 194,781명 중 53.7% 확인, 유증상 1.4% ·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 19 확진자 60명,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으로 이송 · 코로나19 긴급 대응 위한 재난 관련 기금 사용 활성화 · 2.28. 기준 총 174개 ‘국민안심병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동구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집단발생 확진 증가 · 서울시 신천지 28,317명 전수 조사, 유증상 217명, 고위험군 3,545명 ·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전담병원 전환 · 서울시와 일부 민간병원 음압 병상 부족사태 대응 · 코로나19 피해지원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50% 인하 · 서울 지하철 총력다해 코로나 19 확산 방지 · SNS 코로나19 응원 캠페인
	확진:65 완치:9		
'20.02.29.	확진:3,150(+813) 완치:30(+3) 사망: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893개 병상 사용중, 3.5.까지 1,000여개 병상 확보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인력: 공중보건의 165명, 간호인력 10명 지원/군 운전인력 61명 지원 - 전담병원 인력: 의사 50명, 간호인력 68명, 방사선사 2명, 임상심리사 2명 · 경북지역 전담병원 지정, 환자 소개로 950병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인력 의사 9명, 청도 대남병원에 간호인력 46명 지원 · 신천지 전수 조사 88.1% 완료, 1.9%(3,381명) 유증상 	-
	※미발표		
'20.03.01.	확진:3,736(+586) 완치:30(-) 사망:1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 중 대구 2,569명, 경북 514명, 경기 84명, 서울 82명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당부 · 건강취약계층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 철저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임산부 등 · 국민안심병원 214개 지정 	-
	※미발표		
'20.03.02.	확진:4,212(+476) 완치:31(+1) 사망: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2020년 업무계획 발표,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등 밝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강화, ▲신속대응위한 현장 중심 추진체계 확충, ▲주요 감염병 예방·상시 관리 강화, ▲코로나19 사후 평가 및 과제 지속 발굴 등 · 대구·경북 경증환자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작(대구1 센터 개소) · 대구·경북 등 진료·방역 종사 의료인의 보호장구 지속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차량이동 선별 진료소’ 4개소 운영 · ‘보건소 선별진료소’ 50개로 확대 · 박원순 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 동참 제안 · 은평성모병원, 서울제할병원 지속 조치
	확진:92 완치:13		
'20.03.03.	확진:4,812(+600) 완치:34(+3) 사망:2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신천지 전수조사 49.6% 완료, 양성판정률 62% · 코로나19 대구 진단검사 우선순위 변경 ‘신천지신도→일반시민’ · 대구1 생활치료소 경증 확진자(138명) 입소 시작 · 환자 중증도 따라 분류하여 병상 배정, 입원치료 병상 지속 확보 · 중대본 1차 손실보상위원회 회의 개최(2.17.구성) · 대구 취약계층 돌봄 공백 발생,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단 모집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2,036명, 사망자 52명 증가, 이란 총 확진자 2,336명, 사망자 77명 등 해외 확진자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개학연기에 따른 돌봄공백, 긴급돌봄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20만개 지원
	확진:98 완치:15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04.	확진:5,328(+516) 완치:41(+7) 사망:3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 마련 및 배포 ·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19 확진 정신질환자 102명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중자 33명 국가지정격리병원으로 전원, 29명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전원, 33명 대남병원에 남아 코로나19 치료 · 청도대남병원 정신병동 환자 첫코로나19 완치, 정신질환자 진료지침 확정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254개 지정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2,502명(+446명) 3월 15일까지 학교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구 교회·PC방 관련 확진자 첫 발생 · 서울시 COVID19 심리지원단 발족 · 코로나19 2차 격리시설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 추가 지정 · 대구 장애인 시설 확진자 5명 시립병원 입원 지원
	확진:99 완치:26		
'20.03.05.	확진:5,766(+438) 완치:88(+47) 사망: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북도 봉화군 노인의료복지시설 푸른요양원 47명 집단 확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 2명 확진 포함 총 49명 확진자 발생 · 경기도 분당제생병원 관련 확진자 첫 발생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경북 경산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북 신천지 신도 확진자 중 절반가량 거주(135명), 지역 내 2차 감염 및 집단감염 사례 나타나고 있음 · 대구·경북 3개 생활치료센터 584명 경증환자 입소 · 공중보건의 742명 조기입용, 대구·경북 470명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스트레스·불안' 심리상담
	확진:105 완치:26		
'20.03.06.	확진:6,284(+518) 완치:108(+20) 사망: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한마음아파트 46명 확진자 발생, 코호트 격리 · 치료역량 높은 상급종합병원 등 100여개 기관 중심 음압병상 확충 추진 · 대구·경북 6개 생활치료센터 756명 경증환자 입소 · 코로나19 관련 심리지원 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등과 함께 격리자, 가족, 의료인 등 전방위 심리지원 · 국민안심병원 290개 지정 · (해외)전 세계 감염자 10만명 돌파, 중국(80.6%), 한국(6.5%), 이란(4.7%), 이탈리아(3.8%) 순 · (해외)이탈리아 일 확진자 796명, 이란 1,234명 증가. 유럽 및 미국, 일본 등지에서 지속 증가 추세 	-
	확진:106 완치:26		
'20.03.07.	확진:6,767(+438) 완치:118(+10) 사망:4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생활시설 예방적 보호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3.1.) 경북(3.5.) 생활 시설 코호트 격리조치 시행 - 전국 요양병원 추가 전수조사 시행(3.12.까지)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감염병 예방지침 시행 · 대구·경북·천안 8개 생활치료센터 1,110명 경증 환자 입소 · 국민안심병원 303개 지정 · 대구시 사회복지서비스원 격리 등 돌봄 필요한 취약계층 긴급돌봄서비스 실시 	-
	확진:112 완치:26		
'20.03.08.	확진:7,134(+367) 완치:130(+12) 사망:50(+6)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충남·충북 지역 10개 생활치료센터 개소, 1,180 입소 · (해외)이탈리아 총 확진자 5,883명(사망자 233명), 롬바르디아 및 북부 14개 주 4월 3일까지 봉쇄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운동 '잠시멈춤' 확대
stage 3_국내 수도권 중심 취약집단 집단감염 증가 / 해외 확진자 급증, 중국 외 국가 유입 확산세			
'20.03.09.	확진:7,382(+248) 완치:166(+36) 사망: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경로 불명확 사례 증가(서울 35.1%, 경북 28.1%, 대구 17.9%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지역 방문 속임, 격리 상태이나 외부 활동 하는 등의 사례 지속 발생 영향 · 대구·경북 지역 확산세 둔화, 천안시 운동시설, 경로당, 노래방, 병원 등 집단발생 증가 · 대구·경북지역 치료 병상 확보, 생활치료센터 개소 등 조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치료센터 총10개소, 1,663명 경증환자 입소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작 · 이탈리아, 이란, 일본 급증세로 이란 교민 귀국 지원 결정 · 일본발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운영 시작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7,375명, 사망자 366명으로 높은 치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 · 자차구 역학조사 강화, 시 차원 '즉각대응반' 지원 강화 · 신천지 법인 현장 실태조사 · 시청 등 재택근무(SVPN 확대) 기반 구축
	확진:130 완치:29		
'20.03.10.	확진:7,513(+131) 완치:247(+81) 사망:5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연구 본격화 · 생활치료센터 총 12개소, 2,071명 경증환자 입소 · 개학 연기로 인한 긴급돌봄 조치, 요양병원 지속 현장 점검 · (해외)전 세계 109개국 확진자 11만4천여명, 치명률 3.52%(4,029명)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9천명대, 한국보다 확진자 많아짐. 스페인 확진자 급증으로 1,650명, 사망자 35명 · (해외)WHO 전세계 국가 4가지 유형화(미발생국/발생국/집단감염 발생국/지역사회감염 발생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콜센터 긴급점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8. 구로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직원 및 가족 등 집단 확진 · 코로나19 전담구급대 운영, 음압형 이송장비 도입 · 「재난 긴급생활지원」 정부 건의 · 약국 마스크 판매 일손 지원
	확진:156 완치:30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11.	<p>확진:7,755(+242) 완치:288(+41) 사망:60(+6)</p> <p>확진:205 완치:3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구로 콜센터, 대구 콜센터 등 확진자 지속 발생 ·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 관리 방안 마련 ·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운영 · 국민안심병원 312개소 지정 및 이행상황 점검 · 생활치료센터 13곳, 2,358명 경증환자 입소 · 코로나19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 · (해외)미국(1,075명) 및 스페인(2,115명) 확진자 대량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콜센터관련 65명, 해외접촉 17명, 은평성모관련 14명 등 · 취약계층 마스크 1만장 지원
'20.03.12.	<p>확진:7,869(+114) 완치:333(+45) 사망:66(+6)</p> <p>확진:219 완치: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질병 경계 수위 최고단계인 팬데믹 선언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마련 · 특별입국절차 대상 5개 국가 확대, 총 11개 국가 실시 - (현)중국,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추가)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 14개 생활치료센터 2,470명 경증환자 입소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12,462명, 사망자 827명, 전국 봉쇄령 · (해외)미국 영국 제외 전 유럽 여행 30일간 금지, 유럽 각국의 방역 대응방식 급변, 국가별 확진자수 폭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긴급지원 사업 추진 - 알바 끊긴 청년 월50만원 청년수당 제공 등 · 시민에 온라인 무료 공연 제공
'20.03.13.	<p>확진:7,979(+110) 완치:510(+177) 사망:67(+1)</p> <p>확진:231 완치: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약20여명의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확진 · 신천지 신도 중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전수 진단 검사 계획 발표 · 감염병전담병원 69개소 보조금 290억 원 지급 · 금융당국 「금융권 콜센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대문구 교회·PC방 집단감염 확인 ·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의료원에 코로나19 자원로봇 도입 · 태릉선수촌 올림픽의 집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운영 · 서울시 쪽방촌 전 세대에 긴급 구호품 지원 · 25개 자치구 모든 임산부에게 마스크 총29만매 지급 ·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 운영'
'20.03.14.	<p>확진:8,086(+107) 완치:714(+204) 사망:72(+5)</p> <p>확진:244 완치:4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청사 방역관리 강화 · 공무원 대상 유연근무 이행지침 시행 · 대구·경북지역 등 생활지원 및 긴급돌봄 추진현황 점검 - 대구·경북의 생활비지원, 유급휴가비 지원 현황 등 · (해외)프랑스 16일부터 프랑스 내 모든 교육기관 휴교령 · (해외)미국 국가비상사태 선포, 감염질환 인해 '09년 인플루엔자 이후 처음 	
'20.03.15.	<p>확진:8,162(+76) 완치:834(+120) 사망:75(+3)</p> <p>확진:248 완치:4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1. 이후 23일만에 확진자 수 100명 이하로 내려감 	
'20.03.16.	<p>확진:8,236(+74) 완치:1,137(+303) 사망:75(-)</p> <p>확진:254 완치: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 일일 확진자 40명 이상 집단감염 발생 보고 · 격리해제율 8.8%, 치명률 0.91%, 약 80.7% 집단발생과 연관 · 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발표 - 건강보험지원 강화, 코로나 치료 필수비용 신속지원, 의료기관 응자 지원 등 · 생활치료센터 16개, 2,620명 경증환자 입소 · 특별입국절차 유럽발(發) 모든 항공노선 탑승자로 확대 - (현)11개 국가→(확대)아시아5개국+유럽발 항공노선 전체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2만4천여명, 스페인 8,744명, 전세계 치명률 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긴급 생활비지원 시민 71.4% 찬성 · 돌봄 중단된 장애인·어르신에 긴급돌봄 제공 · '착한 마스크' 캠페인 지원
'20.03.17.	<p>확진:8,320(+84) 완치:1,401(+264) 사망:81(+6)</p> <p>확진:267 완치:5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43명' vs '대구·경북 37명' 확진자 발생 역전, 수도권 방역 강화 · 전국 유·초·중·고 4월 5일까지 2주 개학 연장 ·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 - (현)아시아5개국+유럽발 항공노선 → (확대)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취약계층 마스크 1만5천여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치료시설 1,800병상 확보 · 서울시, 복지예산 요양보호사에 마스크 6만8천매 지원 · 집단감염 높은 사업장 시민제보, 불이익 노동자 구제 등 · 신천지교 서울내 2개 지파 본부 종합행정조사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18.	확진:8,413(+93) 완치:1,540(+139) 사망:8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요양병원 5곳에서 87명 확진, 집단감염 발생 · 코로나19 추경, 대구·경북 지원 1조394억원, 감염병 대응 대폭 증액 · 보건복지부 추경 3조6675억 원 확정,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민생경제 지원 등에 투입 · 한국-WHO 코로나19 임상연구 국제협력 전문가 회의 개최 · 정부 코로나19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 · (해외)세계 총 감염자 20만명 돌파, 중국 40.4%, 이탈리아 15.7%, 이란 8%, 독일 5.1%, 대한민국 4.2% 순 · (해외)이탈리아 25일만에 누적 확진자 3만 넘어, 2,503명 사망 · (해외)국가별 경기부양책, 국민 지원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접촉자 중심 확진 증가 · 서울시 전국 최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시행
	확진:270 완치:55		
'20.03.19.	확진:8,565(+152) 완치:1,947(+407) 사망: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만에 확진자 100명대 진입, 대구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에 의한 증가 · 총 확진자 8,565명, 격리해제 1,947명, 사망자 91명, 치명률 1.06% · 대구·경북 지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시행 · 이란 재외국민 귀국 지원, 방역 및 의료지원 대책 논의 · (해외)이탈리아 확진자 3만5천여명, 이란 1만8천여명, 프랑스·미국 9천여명 · (해외)보건의료체계별(공공vs민간주도) 감염병위기 대응 역량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 추경(안) 8,619억원 편성, 117.7만 가구 재난 긴급 지원 · 다산콜센터 공공콜센터 최초 원격 재택근무시스템
	확진:282 완치:58		
'20.03.20.	확진:8,652(+87) 완치:2,233(+286) 사망:9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대실요양병원(64명), 경북 서요양병원 관련(30명) 등 다수 집단감염 발생 · 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 유럽발(發)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 (해외)총 사망자수 10,000명 이상, 이탈리아 34%, 중국 32.5%, 이란 12.8%, 스페인 8.3%, 프랑스 3.7%...잠정 치명률 4.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 중증응급 진료센터' 9개소 지정, 유증상 중증환자 즉각 진료
	확진:300 완치:64		
'20.03.21.	확진:8,799(+147) 완치:2,612(+379) 사망:10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 교민 귀국(80명), 유증상자 2명, KOICA 연수센터에서 격리 생활시작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15일간 운영 중단 권고 	
	확진:324 완치:64		
'20.03.22.	확진:8,897(+98) 완치:2,909(+297) 사망:10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발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재유입 막기 위한 조치 강화 - 음성이어도 14일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 통해 사후관리 진행 · 복지부,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 관리 강화 · (해외)총 확진자 4일만에 20만→30만 돌파, 중국(27%), 이탈리아(17.8%), 스페인(8.4%), 독일(7.8%), 미국(7.5%) 순, 한국(2.9%)은 8번째 · (해외)이탈리아 총 확진자 53,578명, 사망자 4,825명, 잠정 치명률 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강행 의사 밝힌 2,209개 교회 현장 점검, 예배 중지 요청 및 7대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 점검
	확진:324 완치:64		
'20.03.23.	확진:8,961(+64) 완치:3,166(+257) 사망:11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확진자 64명 중 해외유입 14건(21.9%), 유럽·미주 유입 사례 지속 발생 · 중대본 정례브리핑 비대면 방식 전환, 15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 유럽발 입국자 유증상 152명 격리시설, 무증상 1,290명 임시생활시설 입소 · (해외)전 세계 확진자 전일대비 10.66% 증가, 치명률 4.49% · (해외)이란 중남미 등 코로나19 진단 키트 요청 및 한국 대응법 공유 요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종교집회 및 감염병 고위험사업장(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점검 및 중단 권고
	확진:330 완치:64		
'20.03.24.	확진:9,037(+76) 완치:3,507(+341) 사망:12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확진자 76명 중 해외유입 22건(28.9%), 유럽 18건, 미주 4건 등 · 중대본, 지자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현장점검 지속 실시 · (해외)중국 신규확진자 78명 중 74명 해외 역유입, 역유입 대책마련 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유입 지속 증가, 미국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검토 · 서울시, 최대 50만원 재난긴급생활비지원
	확진:336 완치:72		
'20.03.25.	확진:9,137(+100) 완치:3,730(+223) 사망:12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확진자 100명 중 해외유입 51건(51.0%), 유럽 29건, 미주 18건, 아시아 4건 등 · 3.27.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방안 발표 · 저소득층 230만 명 이동 263만 명 노인자치 참여자 54만 명에 소비쿠폰 지원 · 전국 835만명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지정, 월 건강보험료 50% 3개월 간 지원 · 코로나19로 운영 어려운 의료기관 위해 총 4,000억원 규모 융자 추진 · (해외)미국 27일만에 확진자 50명 넘어 새로운 전일지 오명 10대 사망자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교회) 확진자 발생 · 서울시 8619억원 추경 사업회 본회의 통과 ·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긴급 수혈 '열혈의 약속' - 신용공급확대 및 절차 혁신
	확진:348 완치:72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3.26.	확진:9,241(+104) 완치:4,144(+414) 사망:1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확진자 104명중 해외유입관련 39건(유럽25, 미주11, 아시아 3) · 검역강화 위해 인천공항 옥외 위생소 설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강화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실용화 연구 가속화 · 개학연장 지속적인 논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생활방역 전환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생활안정 지원 대책 속속 발표 · (해외)이탈리아 일 사망 743명, 총 7,503명 사망, 치명률 1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구로콜센터 확진자 160명(콜센터 건물 97명, 접촉자 63명), 수도권 내 가장 큰 집단감염 사례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30일 신청, 총117만7천가구에 온라인 5부제, 찾아가는 접수 등으로 신속 지원 계획 · 서울시, 산천지 법안허가 취소
	확진:361 완치:81		
'20.03.27.	확진:9,332(+91) 완치:4,528(+384) 사망:13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제이미주병원 62명 집단감염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 대실요양병원과 동일 건물, 26일 1명 확진 후 직원 72명, 환자 286명 전수조사 결과 61명 추가 확진 판정 받음 · 미국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 87명 공항내 진단검사 후 임시대기시설 대기, 무증상 1,207명 14일간 자가격리, 증상 발생시 즉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장부, 만 7세 미만 자를 둔 200만 가구 아동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 학원, 종교시설 등 휴원 지속 권고 및 사회적거리두기 이행 상황 점검 · 보건복지부, WHO에 한국 방역 대응 현황과 경험 공유 · 장부, 코로나19 연구 자료·심평원 청구료 및 연구 성과 등 국제 공개 방안 마련 · (해외)총 확진자 50만명 돌파, 중국 16.2%, 이탈리아 14.88%, 미국 14.8% 등 	
	확진:376 완치:88		
'20.03.28.	확진:9,478(+146) 완치:4,811(+283) 사망:14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적 완치자가 확진 격리자 넘어서는 2차 골든 크로스 나타남 · 대구소재 6개 병원 총85명(제이미주 74, 기타 11)확진됨, 대구시 요양병원 두차례 재검, 대구소재 정신병원 전수조사 결정 ·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점검 · 방호복 및 방역물품 국내 생산 기반 확대 계획 · (해외)총 확진자 60만명 돌파, 미국 17.4%, 이탈리아 14.4%, 중국 13.5% 등 · (해외)미국 확진자 총 104,463명, 사망자 1,702명, 확진자 10만명 돌파한 첫 번째 나라, 뉴욕 주 44,876명으로 절반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교회) 3월 25일부터 현 재까지 7명 확진자 확인, 접촉자 조사중(교회 4명, 가족 등 접촉자 3명)
	확진:391 완치:93		
'20.03.29.	확진:9,583(+105) 완치:5,033(+222) 사망:15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 41건(39%), 누적 412건(유럽 235, 미주109 등) · 보건복지부, 전국 약 200만 가구 1인당 40만원 아동돌봄쿠폰 지급 · (해외)이탈리아 총확진자 92,472명 사망자 10,023명 최초 사망자 1만명 넘음 · (해외)미국 확진자 12만명 넘음, 사망자 이틀만에 두배 증가, 2천명 돌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시장 세계 45개 주요도시 시장들과 '코로나19 공동대응 화상회의' 서울의 노하우 공유
	확진:413 완치:93		
'20.03.30.	확진:9,661(+78) 완치:5,228(+195) 사망:15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 전원 14일 원칙적 격리 실시 · 심평원 세계 확산 대응 돕기위해 국내 코로나19 환자 데이터 공개 · (해외)전 세계 확진자 60만 넘은지 이틀만에 70만명 넘어, 미국(18.7%)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 5인 미만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월 최대 50만원 지원, 관광업 100억원 지원 등
	확진:434 완치:92		
'20.03.31.	확진:9,786(+125) 완치:5,408(+180) 사망:1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최초 초중고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4.9.이후 순차적 온라인 개학)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 연장, 긴급보육 이용률 증가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230만 명 대상 소비쿠폰 지급 시작 · 이탈리아 교민(530명) 임시항공편으로 인천공항 도착 예정(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로 매출감소로 이종고 겪는 임차인지원 위한, '착한 임대인' 선정등 다양한 지원 발표
	확진:454 완치:107		
'20.04.01.	확진:9,887(+101) 완치:5,567(+159) 사망:16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1.0시부터 모든입국자 14일 자가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휴원연장, 아동 긴급보육 이용률 등 점검 ·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 등)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의료기기 지원 · '코로나19 국민 위험인식' 3차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 외출 자제, 모임종교행사 불참 92.3% · (해외)유럽 코로나19 이탈리아 주춤, 프랑스·스페인서 기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2일만에 첫 지급 완료 · 치매돌봄 등 비대면으로 맞춤형 서비스 지속 제공 · 청년 상인이 만든 도시락 취약계층 전달 ·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 폐쇄
	확진:478 완치:117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02.	확진:9,976(+89) 완치:5,828(+261) 사망:16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발생 약 83.3%는 집단발생 연관성 확인, 기타 조사·분류 중 사례 10.7%, 해외유입 사례가 6.0% · 국내 코로나19 사망 대구 117명, 경북 41명, 경기 6명, 부산 3명, 울산 1명, 강원 1명으로 대구·경북에 집중(93.5%) · 경기도 전체 확진자 중 약 50%는 교회, 콜센터, 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 최근 의정부성모병원의 환자 발생 ·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임시항공편에 탑승한 우리 국민과 그 직계 가족 총 309명 4월 1일 1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등 국내 자체 백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 투자, 10년간 2천151억원 지원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 현장 적용을 위한 임상연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10명 중 9명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인식, 서울시 대처 긍정평가 80.5% · 종합운동장 대규모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해외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실시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14만2369명, 25명 지급 완료 · 서울시, 교육청·자치구 협력하여 노트북 5만2천여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총150억원 규모 '코로나19 특별응답' 지원
	확진:494 완치:127		
'20.04.03.	확진:10,062(+86) 완치:6,021(+193) 사망:1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확진자수 1만명 초과, 첫확진자 발생(1.20.) 이후 74일만 · 대구 지역사회전파 시작 이래로(2.18.) 45일만에 일일 확진자 10명 미만 · 경북 경산시 60대 개원 내과 의사 사망, 국내 첫 의료진 사망자 발생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원칙 마련, 건보료 합산 소득하위 70% ·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 준비완료, 4.13.부터 지급 · 코로나19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의도 윤중로 버스노선 임시 우회, '벚꽃축제 보다 잠시 멈춤' ·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고발 · 서울시, 코로나19 'AI 모니터링 콜시스템' 도입
	확진:513 완치:131		
'20.04.04.	확진:10,156(+94) 완치:6,325(+304) 사망:17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잠정 완치율 62.27%(50% 돌파 일주일 만), 잠정 치사율 1.72% · 중대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4.19.까지) - 목표: 일 확진자 수 50명 수준, 감염경로 알 수 없는 사례 5% 이하로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증상 해외입국자 검사 강화, 자가격리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 서울시, 인천공항 입국자 전용 '외국인관광택시' 투입해 특별수송
	확진:533 완치:144		
'20.04.05.	확진:10,237(+81) 완치:6,463(+138) 사망:18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본, 코로나19 상황가운데 의료인력 안전한 환경 근무할 수 있도록 「감염예방 추진방안」 마련·시행 · 해외입국자 GIS 통합상황판 통해 다중 감시체계 구축, 무단 이탈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 - 감염병예방법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4.5 시행) 부과 	
	확진:558 완치:145		
'20.04.06.	확진:10,284(+47) 완치:6,598(+135) 사망:1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치 후 재확진 사례 51건, 현재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판단 · 코로나19,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호소, 국민 피로도 급증 ·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지원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융자신청 시작 · (해외)일 확진자 10만명 초과, 전세계 확진자 130만명, 미국 확진자 33만명, 사망 9,50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 타격' 문화예술계에 총50억 긴급지원
	확진:563 완치:151		
'20.04.07.	확진:10,331(+47) 완치:6,694(+96) 사망:19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강행하던 서울시 유흥업소 확진자 발생 · 자가격리자 4만6천명, 75명 관련법 위반 사법처리 진행 중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제작 · WHO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한국 코로나19 대응 경험 기조 발제 요청 · WHO 국가별 치명률 격차, 전염 확산 수준, 국가 내 주요 감염군, 의료 인프라, 검사 진행 수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첫 사망자 발생, 폐암 투병 구로 콜센터 가족 · 서울시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적용
	확진:571 완치:164 사망:2		
'20.04.08.	확진:10,384(+53) 완치:6,776(+82) 사망: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원 술집(J바), 서래마을 술집(L바) 각각 1명, 3명 확진자 발생 · 일본, 동선 거짓진술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보건복지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의 방역 대응 경험 공유 · 고위험집단 방역강화, 학원에 대한 행정명령 강화 ·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최초 강제추방 · (해외)미국, 코로나 확진자 40만542명(치명률 약 3.2%)...최대 발생지 뉴욕 사망자수 9.11 테러 넘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강도 '잠시 멈춤' 지속 당부 · 서울시장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생업소 118명 전원 자기격리, 전수조사
	확진:581 완치:169 사망:2		
'20.04.09.	확진:10,423(+39) 완치:6,973(+197) 사망:2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경북 사태 이후 신규확진자 51일만에 최저 수준, 그러나 재확진 사례 증가 · 국내 사망 204명(4.9.0시 기준)평균연령 77.4세, 203명이 기저질환자 · 국내 최초 온라인 개학(고3, 중3) · 일본, 유전자 변이 추적 지속, 의미있는 유전자 변이 발견되지 않아 · 단기 대량 검사 위한 "취합검사법" 프로토콜 제작, 집단 감염 선별 유용 · 코로나19 대응 손실입은 146개 의료기관 1,020억 원 개산급 지급 · (해외)전세계 확진자수 1,50만명 돌파,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한미미달무허가 영터리 손소독제 제조업체 적발 · 소형아파트다세대주택 등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10만여개 비치
	확진:592 완치:174 사망:2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10.	확진:10,450(+27) 완치:7,117(+144) 사망:208(+4) 확진:597 완치:185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 개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 스페인 교민 4월 11일, 13일 두 차례 특별 항공편으로 인천 도착 예정 · 보건복지부, 3~5월 특별재난지역 하위 50%, 그 외 지역 하위 40% 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30~50%) · 매칭서비스 통해 코로나19 진단도구 수출용 허가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의도 윤중로 버스 노선 우회...주말 한번 더 · 서울시, 시내버스 100% 방역...“에어컨 세척으로 코로나19 안심”
'20.04.11.	확진:10,480(+30) 완치:7,243(+126) 사망:211(+3) 확진:600 완치:195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격리 지침 위반자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 착용하여 관리 방안 논의 ·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 개선방안 마련 · 단거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 의무적 14일 격리(4.1.0시 이후), 현재 81.7% 입소 	
'20.04.12.	확진:10,512(+32) 완치:7,368(+125) 사망:214(+3) 확진:602 완치:202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확진자 나흘째 30명 안팎, 완치율 70% 넘어. 그러나 해외 유입, 재확진(111명) 사례 늘어나 ·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선거 관리 요원의 감염 노출 최소화 원칙 · 4.13.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후 3일 이내 모두 진단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4월 신규확진자 중 57%가 20~30대, 나와 추약자들 위해 '잠시 멈춤' 당부
'20.04.13.	확진:10,537(+25) 완치:7,447(+79) 사망:217(+3) 확진:610 완치:214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재확진 현재 116명(4.13.0시), 누적 확진 중 약 1.1%(대구경북 다수) · SNS '사회적 거리두기' 키워드 정보량 최근 5일 사이 약 60% 감소 · 금주 후반, 사회적 거리두기 성과 평가,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여부 논의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 2차례 위반 60대, 구속영장 첫사례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돌봄쿠폰, 약 230만 아동에 1인당 40만원 돌봄포인트 지급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알바 잃은 892명 청년수당(2개월 1인당 50만원) 조기지급 · 서울신용보증재단, 대규모 인력 투입 보증처리속도↑ · 서울시 코로나 블루 방지를 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0.04.14.	확진:10,564(+27) 완치:7,534(+87) 사망:222(+5) 확진:613 완치:228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재확진 124명(4.14.0시), 방역당국 바이러스 변이 관계 조사 · 美 보건복지부 장관 요청,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 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의 조기 성공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 운영 방안 마련 · 일본 4.14.(화)부터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 참여희망기관 공모 · WHO 코로나19 특사, 마스크 착용 보편적 일상 될 것...1850년 콜레라 후 적응했던 혁명과 같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3월 감소했던 통행량 4월 증가추세,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 서울시, 주민참여형 마스크 생산단체에 MB필터 74만장 지원 · 집에서 박물관 체험...서울역사박물관 전시 온라인 VR서비스
'20.04.15.	확진:10,591(+27) 완치:7,616(+82) 사망:225(+3)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확진자 27명 중 11명 수도권, 재확진 지속 증가(133명)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발열체크, 손세정제 사용, 투표 대기 1m 거리두기, 투표 시 비닐장갑 착용 등 방역 철저 · WHO 기준 한국 코로나 위험 '3단계'로 내려와...‘총선 휴일’ 생활방역 전환 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서울시장, 이란 테헤란 시장 코로나19 대처·협력 방안 화상통화 · 서울시, 긴급경영안정자금·서울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상권살리기 노력
'20.04.16.	확진:10,613(+22) 완치:7,757(+141) 사망:229(+7) 확진:619 완치:250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재확진 141명, 검사 오류, 죽은 바이러스 '조각' 가능성 두고 조사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 고액자산가 제외, '20.3월 기준 건보료 소득하위 70% 해당자 · 제2차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생활방역 전환 가능성, 준비사항 등 논의 ·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예방 백신 후보물질 국내 임상1·2상 진행 예정 · 질병, 코로나19 환자 혈액 및 배설물(노, 분변)을 통한 전파가능성 희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 55만 돌파, 1인가구(36.2%), 40대(22.6%) 신청률 가장 높아 · 코로나19 마음 돌보는 온라인 캠페인 및 의료진 헌신 감사와 존경 블루라이트 캠페인 전개
'20.04.17.	확진:10,635(+22) 완치:7,829(+72) 사망:230(+1) 확진:621 완치:268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소 신규 확진자 11명(신규 확진자 중 50% 이상), 입국자들의 2주간 자가격리 수칙 철저한 준수 필요 · 민관합동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제 개발「범정부 실무추진단」 발족 · 국민연금, 위기대응 TF가동 등 코로나19 대응 · 생활방역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아프면 쉬다', '손씻기', '2회 환기 및 소독' 등 생활방역 지침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97% 생활방역 전환 필요, 그러나 63.6% 아직 이르다, 통제 가능 대응체계 갖춰야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18.	<p>확진:10,653(+18) 완치:7,937(+108) 사망:232(+2)</p> <p>※미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확진자 163명, 대구 41.1%, 재발까지 13.5일 소요, 무증상 52.6% 등, 2차 전파 여부 단정 못해 · 논산 훈련소 2명 확진자 발생(전날 포함 3명, 모두 신천지 신도), 집단감염 우려 · 4.1.~12. 해외입국자 일평균 3,611명, 20~30대 40%, 해외유학생 등 입국 지속 · 4.11. 1차 입국한 스페인 귀국 국민 39명 중 12명 유증상, 1명 양성 판정 	
'20.04.19.	<p>확진:10,661(+8) 완치:8,042(+105) 사망:234(+2)</p> <p>확진:624 완치:288 사망: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즉시 완화 국민 36.7% 동의, 63.3% 반대 · 중대본, 5월 5일 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불확실한 감염경로, 세계적 대유행 등 위험요인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 분산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 등 - 일상 복귀 아닌, 생활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 공적마스크 대리 구매 시 가족관계증명서 인정 등 · 보건복지부, 한-중남미 코로나19 대응 웹 세미나, 코로나19 대응 경험 중남미 국가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지하철 '코로나19' 제로 비결 알려달라, 남미 45개국 지하철 운영 협회 요청으로 화상회의 진행
'20.04.20.	<p>확진:10,674(+13) 완치:8,114(+72) 사망:236(+2)</p> <p>확진:624 완치:304 사망: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유입 확진자 1,006명(4.20.0시), 20~30대 비율 높고, 지역 사회 감염 유도 확진자 6.1% 157명 확진자 발생 · 보건복지부 G20 화상 보건장관회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공유, 보건복지 분야 국제 공조 강조 · 코로나19 예방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 마련,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하고 좌석 간격은 1.5m 이상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학생들 온라인 개학 · 교육부 5월 고3부터 단계적 등교 개학여부 다음 주 확정, 오늘 초1~3 온라인 개학, 접속장애 최대 고비 · 전 세계 확진자수 2,335,433명(치명률 7.02%), 전일대비 3.24% 증가(영국 5.12%, 미국 3.19%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시장, 글로벌 리더들과 '코로나19 화상 세미나' 서울시의 방역 경험과 노하우 소개 · 서울시, '코로나19 운영난' 어린이집 고용유지 위한 인건비 75억, 방역물품 63억 긴급지원 · 서울시 모든 소상공인 무급휴직자에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근로자 2개월 최대 100만원까지
'20.04.21.	<p>확진:10,683(+9) 완치:8,213(+99) 사망:237(+1)</p> <p>확진:626 완치:315 사망: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발표, 후속 조치 원활한 추진위한 추진 체계 구축, 법령 개정 등 추진 · 공공 실외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간이운동장 등),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등 제한적 개방 계획 · 교육부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논의, 초·중·고 등교 시기·방법 5월 초 생활방역 전환 여부 연계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로 위축된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2억 원 · 가락강서 농수산물도매시장 2,834개 임대시설로 6개월간 50% 감면 · 코로나19 기간 동안 3만여 노인에 맞춤형봉사서비스 제공
'20.04.22.	<p>확진:10,694(+11) 완치:8,277(+64) 사망:238(+1)</p> <p>확진:628 완치:322 사망: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경보 두달째 '심각', 정부 '하향 검토 안해' · 중화항체 형성 된 완치자 중 48% 코로나19 양성 반응, 바이러스 체내 잔류 기간 차이 등 추가 연구 진행 예정 ·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 공개(2회 정기, 방역관리자 지정 등)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 국제사회 협력 요청 체계적 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감염취약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비접촉식 체온계 6만5천개 지원 · 의료진 헌신에 감사하는 블루라이트 캠페인 참여 잇따라
'20.04.23.	<p>확진:10,702(+8) 완치:8,411(+134) 사망:240(+2)</p> <p>확진:628 완치:342 사망: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사망자 240명(4.23.0시), 치명률 2.24%, 대구경북 90.9%, 65세 이상 85.8% · 김영병 전담병원 조정 방안 6개 병원(7,500병상) 수도권위 최소 유지, 김충조정 · 의료인 응원캠페인(#덕분에잘못지) 4.16시작, 8일째 진행 중 각처 감사존경 이어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강화, 감염병방역체계 관리 안전성 확보, 백신 수급관리 강화 등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연매출 2억원 미만 자영업자에 '생존자금' 70만원×2개월 현금지급
'20.04.24.	<p>확진:10,708(+6) 완치:8,501(+90) 사망:240(-)</p> <p>확진:628 완치:362 사망: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제·백신개발 동향 점검, 연구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 · 생활 속 거리 두기 분야별 세부 지침(초안) 공개 · 코로나19 등교 대비 학교 방역 준비상황 점검 ·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안심밴드 4.27.부터 착용 관리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신천지 유관단체 HWPL 법인설립허가 취소 ·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15%이상 고리 대출→1.5% 저금리 전환 · 서울교통공사, 사랑의 헌혈 · 농산물 기부로 코로나19 극복 동참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4.25.	확진:10,718(+10) 완치:8,635(+134) 사망:240(-)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본,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 예술 통한 '치유(힐링)' 프로그램 제공 계획 · 4.11. 1차 귀국한 스페인 귀국 국민 39명, 4.26. 임시생활시설 퇴소 - 4.13. 2차 입국 스페인 귀국 국민 43명, 4.28. 자가격리 조치 해제 예정 	
'20.04.26.	확진:10,728(+10) 완치:8,717(+82) 사망:242(+2) ※미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본, 코로나19 정부 대책 실효성 향상 위해 '코로나19 정책 대응 패키지' 홍보 강화 계획 마련 논의 · 사회복지시설 방역관리 이행 사항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시설 전체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2단계 지자체 중 10% 선점 현장점검 실시, 3단계 보건복지부 일부 시설 지자체와 합동점검 5.1.까지 완료 	
'20.04.27.	확진:10,738(+10) 완치:8,764(+47) 사망:243(+1) 확진:629 완치:393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 관련 부처별 방역지침 마련, 공공 시설 단계적 운영 재개 계획 마련 · 요양병원, 생활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중 확진자 발생 기관 대상 주2회 주기적 재검 실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시장, 「제1회 WEA 컨퍼런스:팬데믹과 동아시아 주제 발표 · 서울시민, 감염병 대유행 직후 '실업보다 감염병이 더 위험' 인식(서울서베이)
'20.04.28.	확진:10,752(+14) 완치:8,854(+90) 사망:244(+1) 확진:633 완치:427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발생 100일, 중국 유입→신천지, 대구·경북 중심 지역 사회 전파→수도권 집단감염→해외유입 확산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1차 회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운영계획안 및 「K-방역」주제별 웨세미나(webinar) 시행계획안에 대해 협의하였음 · 안심밴드,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등 활용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 · 국민안심병원 시행(2.24.)이후 현재 상급종합병원 29개 포함, 총347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8 월말까지 사용 연장(4.26. 현재 144만 가구 신청)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긴급지원 15억 추가 투입 · 장애인활동지원사 3만명 방역물품지원
'20.04.29.	확진:10,761(+9) 완치:8,922(+68) 사망:246(+2) 확진:633 완치:437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확진 277명(4.28.기준) 바이러스 재활성화 불가능, 완치 후 민감도 높은 PCR 검사시 잔재 검출 확률 높아 · 확진자 5% 소아·청소년, 신천지 관련 41.6%, 성인보다 증상 경미, 사망하거나 중증 진행한 환자 없었음 · 연휴기간(4.30.~5.5.) 지자체별 코로나19 대비 특별방역대책 마련 · 대구·경북 16개 생활치료센터 4.30. 운영 종료(총3,037명 환자 완치) · 코로나19 진단키트 FDA 긴급사용승인 총 4개, 복지부 등 취득 온라인 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최신 지침 앱으로 확인, 전국 최초 모바일 서비스 ·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날 행사 전면 취소
'20.04.30.	확진:10,765(+4) 완치:9,059(+137) 사망:247(+1) 확진:633 완치:453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확진자 4명 모두 해외유입, 국내 발생 최초 0명 기록 · 코로나19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활발히 진행 · 황금연휴 기간 관광지 및 인근지역 방역수칙 점검 강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코로나19 경제부담 줄이기 위해 기후변화기금 금리 대폭 인하
'20.05.01.	확진:10,774(+9) 완치:9,072(+13) 사망:248(+1) 확진:634 완치:455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부분적 운영 재개 계획 발표 · 체류 자격 상실한 약39만 외국인 및 노숙인 등 방역관리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시장, 5일 프로야구 개막 앞두고 경기장 방역 직접 챙겨 · 코로나19 지친 시민 응원 위한 '산속영화관:자동차 극장', 온라인 전시 오픈
'20.05.02.	확진:10,780(+6) 완치:9,123(+51) 사망:250(+2) 확진:635 완치:463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본 수도권 일부지역 요양병원 표본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구로구, 은평구, 경기 성남시, 의정부시, 군포시 등 5개 시군구 전체 요양병원 6,544명. 코로나19 검체취합검사 방법 활용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 · 선별진료소 발생 초기 257개소(1.27.), 최대 639개소(3.20.)확대, 운영 축소해 현재 638개소(5.1.)운영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발생 양상 및 수요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동형, 도보 이동형 등 다양화 운영 - 향후 운영성과 평가,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사전준비 계획 중 	
'20.05.03.	확진:10,793(+13) 완치:9,183(+60) 사망:250(-) 확진:637 완치:473 사망: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 전환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동안 신규 확진자 감소, 집단발생 감소,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안정화 - 운영중단 공공시설 위험도 고려 방역지침 마련 후 단계적 운영 재개 - 생활속 거리두기 개인, 집단 방역 기본 수칙 및 보조수칙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제2회 추경 통해 총2조8,329억원 코로나 대응 긴급지원 · 5월 어린이날 공원 내 모든 행사 전면 취소 · 생계위기 특수고용·프리랜서에 특별지원금 50만원 현금지급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정부 대응 요약

일자	국내 발생	정부	서울시
'20.05.04.	확진:10,801(+8) 완치:9,217(+34) 사망:25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 주관 전 세계 보건의료 관계자와 함께 “K-방역 제1차 웹세미나” 개최 · 국민대상 생활방역 의견수렴, “아프면 3~4일 쉬는게 제일 어려워” · 중대본 건강보험 선지급제도 5월에서 6월까지, 1개월 연장 추가 지원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의료이용체계 개선 방안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운영, 전화상담·처방 운영 개선 등 	
	확진:637 완치:481 사망:2		
'20.05.05.	확진:10,804(+3) 완치:9,283(+66) 사망:25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본,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운영 조정, 감축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3.)9개병원 500여개 병상,(4.28.)8개병원 1,200여개 병상 감축 - 5월 6일 7개 전담병원 지정해제 등 총 1,725병상 감축 계획 	
	확진:637 완치:489 사망:2		
'20.05.06.	확진:10,806(+2) 완치:9,333(+50) 사망:25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애로사항 신속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치료제 분야 14개사(社)와 백신 분야 7개사를 중점 지원 후보군으로 설정하여 개발 현황, 기업 지원 수요 등을 파악하여 관리 중임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은 기업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5월 6일(수)과 7일(목)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서울 중구)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 심층 상담을 진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시장, 코로나19 방역협조 요청 천주교, 기독교계 대표와 만남 · 서울형 생활속 거리두기 발표 ·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해외공유 사이트 오픈, 방문 2백만부 돌파 · 서울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
	확진:637 완치:494 사망:2		
'20.05.07.	확진:10,810(+4) 완치:9,419(+86) 사망:25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66번 확진자 발생, 연휴동안 이태원 클럽 5개 업소 방문 및 수원, 성남, 강원도 등 방문, 전 지역 추가확산 우려 · 생활속 거리두기 국민 참여 위한 홍보 적극 진행,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계획 · 코로나19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외신 브리핑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신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에 관하여 정책과 기술이 어우러진 종합 정보 전 세계 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시장, 콜롬비아 부통령에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공유 · 시립 은평병원, 코로나19 극복위한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 행동지침’ 안내
	확진:637 완치:508 사망:2		
'20.05.08.	확진:10,822(+12) 완치:9,484(+65) 사망: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15명 이상 추가, 총 19명 · 중대본 이태원 클럽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상황 공유 위한 긴급회의 소집 · 클럽 등 유흥시설 한달간 행정명령 시행(5.8.20시부터) · 범정부 지원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가속화 · 코로나19 상시감사체계 강화 위한 SARI, ARI 감사대상 의료기관 확대 운영 ·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위한 민관 전문가 협의회 본격 가동 · 식문화 개선, 외식문화 개선을 통한 생활 방역 추진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관했던 63개 문화시설 단계별 운영 재개 · 코로나 피해 여행사에 전국 최초 현금지원 시작 · 이태원 일대 유흥시설 44개소 긴급점검
	※미발표		
'20.05.09.	확진:10,840(+18) 완치:9,568(+84) 사망: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로 인한 확진자, 검사 수요 다시 급증 · 지자체별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실행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인천시, 강원도, 경기도 중심 용인시 확진자 관련 방역조치 현황 및 계획 점검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계획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원순 시장, 서울시내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발표 · 용인66번 확진자 관련 동선 조사, 1,500여명 대상 유선 출입여부 및 동선 확인 등
	※미발표		
'20.05.10.	확진:10,874(+34) 완치:9,610(+42) 사망: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시 확진자 관련, 지자체별 유흥시설 합동점검 실시, 접촉자방문자 신속 진단검사 추진 중, 주말 비상 선별검사체계 지속 유지 · 중대본 일반 국민 대상 코로나19 항체가(면역도) 조사 계획 발표 · 5.13.~5.29. 권역별 대학 방역 관리 현황 현장 점검 실시 	
	확진:669 완치:541 사망: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서울시 공식 보도자료, 현황자료 기반 작성/ 확진자 전국 및 서울시(화색영역)

*서울시 확진자 및 완치자 수는 공식 보도자료 발표일 기준 기입(미발표일 미기입), 발표 시간에 따라 당일 최종 확진자 수와 차이 있을 수 있음

● 발생·치료 현황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86명... "용인 66번 환자 다수전파 아냐" \(종합\)](#)
-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전국 최소 90명... 오늘 서울 6명 추가확진\(종합\)](#)
- [클럽서 퍼진 코로나19... 병원·군대·콜센터 등 '2차 확산' 불씨 \(연합뉴스\)](#)
- [제주까지 간 '클럽발 코로나'... 숨은 환자 찾기 비상 \(한겨레\)](#)
- [클럽發 감염 72명, 약 30%가 무증상... '조용한 전파' 비상 \(동아\)](#)
- ['코로나 아우팅' 무서워 숨는 그들.. "제2 신천지 사태 우려" \(중앙일보\)](#)
- [클럽 문 닫자 술집으로... '거리두기'는 딴 세상 이야기 \(세계일보\)](#)

● 정책대응

- [코로나19 장기화에 공공병원들도 경영난... 정부에 'SOS' \(메니파나뉴스\)](#)
- [정부 "코로나 2차 파동 대비... 생활방역 지침, 의료자원 활용 보완"\(뉴시스\)](#)
- [정부, 국민 8000명 대상 '코로나 면역' 조사\(조선비즈\)](#)
- ["문 열면 불법, 닫으면 코로나19"... 유통업계 '에어컨' 딜레마 \(뉴스1\)](#)
- [서울시민 13.4%가 코로나19 유행 후 '병원 진료 필요했으나 받지 않았다' \(경향신문\)](#)
- [코로나19로 매출 30% 이상 감소... 의협 "손실보상 확대" 요구 \(메디컬업저버\)](#)
- [서울시민 15% '코로나19 스트레스 심각... 즉각 도움 필요' \(경향신문\)](#)
- [코로나 이후,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프레시안\)](#)

[이태원발 감염대책]

- [증상 없어도 이태원 클럽 다녀왔다면 '유증상자'로 검사\(종합\) \(뉴시스\)](#)
- [전국으로 확산되는 이태원발 확진자, 서울시 익명검사제 도입 \(한겨레\)](#)
- [박원순 "이태원 클럽 방문 연락두절 3000여명, 자택추적도 불사" \(뉴시스\)](#)
- [박원순 "이태원 갔는데 검사 안 받은 사실 확인시 200만원 벌금" \(뉴시스\)](#)
- [정세균 총리 "이태원 방문자, 협조 늦어지면 고강도 대책" \(한국일보\)](#)
- [장병들 잇따라 '이태원 자백'... '軍의 한수' 이틀만에 통했다 \(중앙일보\)](#)
- ['이태원 방문' 자진신고 49명.. 군, 확진자 발생부대 휴가 통제 \(연합뉴스\)](#)
- ["확진자 나왔는데 정상 출근?"... 서울스퀘어 '코로나19 공포' 확산\(종합\) \(뉴스1\)](#)
- [코로나 자가격리 이탈 외국인, 범칙금 50만원→300만원 \(조선일보\)](#)

[생활방역]

-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생활 속 거리두기' 추진 \(뉴스메이커\)](#)
- [메르스 겪고도 매뉴얼 없어... '방역차별'에 두번 우는 장애인 \(세계일보\)](#)
- [13일부터 서울지하철 혼잡 시 마스크 안 하면 못 탄다 \(연합뉴스\)](#)

[재난긴급지원금]

- [온라인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재난지원금 QnA \(세계일보\)](#)
-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 신청, 18일로 1주 연기" \(연합뉴스\)](#)
- ["노숙인은 신청 어려운 긴급재난지원금... 장벽 해소해야" \(연합뉴스\)](#)

[교육]

- ['이태원 쇼크'에 결국 일주일씩 등교 미룬다...20일 고3 등교 \(뉴스1\)](#)
- [등교연기 요구 거세지자 유은혜 "학생 안전 최우선...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판단"\(뉴시스\)](#)
- ["확진 학생 왕따될것" 등교연기 靑청원 20만 육박 \(국민일보\)](#)
- [이태원 클럽 확진자에 학부모 '분노'...원어민강사에도 불안감\(한국경제\)](#)

● 경제현황

- [코로나발 충격에 4월 실업급여 1조원...월 기준 역대 최대\(연합뉴스\)](#)
- ["코로나19 타격 큰 동네마트·음식점서 돌봄포인트 72% 소비" \(연합뉴스\)](#)
- ["코로나로 천문학적 돈 푼 정부, 누가 메울거냐...다음세대? 증세?"\(조선비즈\)](#)
- ['코로나 위기' 현실화...5월 1~10일 수출 46.3% 급감 \(서울신문\)](#)
- [코로나에 막힌 中企...서울상의, 온라인 판로 지원\(뉴시스\)](#)
-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세계 경제 재개 변수로\(이투데이\)](#)

● 국제현황

- [전세계 코로나19 사망자 28만명 넘어...유럽이 절반 이상 \(서울경제\)](#)
- [미국에 마스크 200만장 긴급지원..해리스 "감사·한미동맹 굳건" \(연합뉴스\)](#)
- [백악관 깊숙이 들어온 코로나... 파우치도 자가격리 \(동아일보\)](#)
- [뉴욕, 코로나합병증 추정 '어린이 괴질' 85건 조사중 \(뉴시스\)](#)
- [스웨덴의 코로나19 '집단 면역', 이민자 무시했다가 실패 궤도 \(나우뉴스\)](#)
- [영국, 코로나19 100일 후...사망자 수 세계 2위인 이유 \(조세일보\)](#)
- [코로나19 잡아가는 독일, 완화조치 이후 재확산 우려 \(연합뉴스\)](#)
- [안도하던 독일·한국·중국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경악 \(연합뉴스\)](#)
- [집단감염 발생·우한 '비상'..中 신규확진 또 10명대 \(연합뉴스\)](#)
- [中·佛도 순차등교 시험 돌입... 싱가포르, 확진 늘어 재휴교 \(세계일보\)](#)

● 연구현황

- ["코로나19, 남성이 더 잘 걸린다는 근거 있다" \(연합뉴스\)](#)
- [무증상자, 숨만 쉬어도 같은 방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 전파 \(뉴스1\)](#)
- ['항바이러스 3제 요법' 코로나19 환자 퇴원 5일 이상 앞당겨 \(서울경제\)](#)
- [美 연구 "코로나19로 수명 10년 단축"...동맥경화 수준 \(국민일보\)](#)
- [헌혈, 코로나19와 연관 없다...헌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헬스조선\)](#)

● 오피니언

- ["유흥-종교-실내체육 등 밀집시설 위험도 나눠 단계별 운영제한 필요"\(동아일보\)](#)
- [\[사설\] 시설·지역별 위험성 맞춘 '방역 강화' 시급하다\(한겨레\)](#)
- [\[사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확산... 젊은이들 경각심 가져라\(국민일보\)](#)
- [이태원발 집단감염, 전국 확산 차단에 총력 기울여야 \(한국일보\)](#)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예시1. 대한의사협회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 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 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무증상	•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 없음 ④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⑤ 비흡연자
경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기저질환 없음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④ 호흡곤란을 제외한 1개 이상 증상* ⑤ 흡연자
중증	•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또는 영상소견상 폐렴
위중	① 의식이 떨어진 경우 ② 중증의 호흡곤란 ③ 산소포화도 90% 이하 ④ 영상소견에서 중증도의 양측성 폐렴 또는 50% 이상 폐렴

* 증상 : 두통, 기침, 인후통, 가래, 피로감, 근육통, 호흡곤란
 ※ 출처 :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본부 전문위원회 (2020.3.5.)

● 예시2. 수정된 조기경고점수(Modified Early Warning Score : MEWS)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C)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조기경고점수(early warning score)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중(중등도위험군)	중증(고위험군)	최중중(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 기계호흡 등이 필요	• CRRT, ECMO 필요 •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질환을 가진 환자

● 예시3. 영국 조기경고점수(National Early Warning Score : NEWS)

변수	3	2	1	0	1	2	3
산소포화도	≤91	92~93	94~95	≥96			
산소투여여부	예	예	아니오	아니오			
맥박	≤40		41~50	51~90	9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	≤90	91~100	101~110	111~219			≥220
호흡수	≤8		9~11	12~20		21~24	≥25
체온	≤35.0		35.1~36.0	36.1~38.0	38.1~39.0	≥39.1	
의식수준				정상			이상

- 5점 이상 중등도, 7점 이상 중증

※ 예시2,3 출처 : 대한중환자의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대한감염학회·대한흉근요법학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증환자용). (2020.3.2.)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4판)」(지자체용)

[붙임2] 전국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현황

[감염병전담병원 현황]

2020. 3. 13. 보도자료

지역(시도)	개소	기관명
서울	5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북병원, 보라매병원
부산	1	부산의료원
대구	7	대구의료원,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중구),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달서구)
인천	5	인천의료원, 인하대학교병원, 길병원, 인천적십자병원, 백령병원
광주	2	빛고을전남대병원, 제2시립요양병원
대전	4	국군대전병원, 시립제2노인전문병원, 충남대병원, 대전보훈병원
울산	5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울산시립노인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세종	1	NK세종병원
경기	7	수원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강원	5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충북	2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남	4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전북	3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전남	3	목포시의료원,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경북	6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영주적십자병원, 국군대구병원(경산)
경남	4	마산의료원, 국립마산병원,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통영적십자병원
제주	3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병원
총합	67	17개 시도, 67개소

※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의료기관(2) : 울진군의료원(경북), 고려요양병원(울산)

※ 출처(3.1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3539)

[붙임3] 전국 국민안심병원 현황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외]

2020. 5. 5. 기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입원/외래															
33	6	24	8	16	3	5	2	6	4	9	1	1	-	78	30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입원/외래	
9	2	11	-	12	4	11	3	12	6	16	2	29	4	4	2

출처 : 5.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html)

[붙임3] 전국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2020. 5. 5 기준

연 번	2차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1	강남구 강남메트로병원	외래진료	02-1544-7522
2	2	강남구 강남차병원	외래진료	02-3468-3000
3	3	강남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4	4	강남구 리북한방병원	외래진료	02-546-1358
5	5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19-2114
6	6	강남구 우리들병원	외래진료	02-513-8000
7	7	강남구 자생한방병원	외래진료	1577-0007
8	8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진료	02-6925-1111
9	1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440-8114
10	2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	1588-4100
11	3	강동구 남기세병원	외래진료	1577-2533
12	4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25-1111
13	1	강서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14	2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522-7000
15	1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진료	02-1588-3330
16	2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877-8875
17	3	관악구 연세건우병원	외래진료	02-1644-4630
18	1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33
19	2	광진구 해민병원	외래진료	02-2049-9000
20	1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26-1114
21	2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외래진료	02-2067-1500
22	3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858-0100
23	1	금천구 희명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04-0002
24	1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진료	02-970-8000
25	2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진료	02-950-1114
26	3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외래진료	02-970-2114
27	1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01-3114
28	2	도봉구 바로선병원	외래진료	1666-5853
29	1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58-8114
30	2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77-3675
31	3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진료	02-966-1616
32	4	동대문구 코리아병원	외래진료	02-2281-9999
33	1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진료	02-870-2114
34	2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6299-1114
35	3	동작구 더본병원	외래진료	02-587-2299
36	1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진료	02-396-9161
37	2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99-1004
38	1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11
39	1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90-8114
40	1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20-5114
41	2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912-0100
42	3	성북구 서울척병원	외래진료	1599-0033
43	1	송파구 경찰병원	외래진료	02-3400-1114
44	2	송파구 서울병원	외래진료	02-405-8501
45	1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진료	02-2604-7551
46	2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50-5114
47	3	양천구 흥익병원	외래진료	02-2693-5555
48	1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661-7575
49	2	영등포구 대림성모병원	외래진료	02-829-9000
50	3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외래진료	1899-1475
51	4	영등포구 새길병원	외래진료	02-1522-0075
52	5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진료	1811-8114
53	6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진료	02-2632-0013-8
54	7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29-5114
55	1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709-9114
56	1	은평구 본서부병원	외래진료	02-3156-5000
57	2	은평구 은평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811-7755
58	3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진료	02-353-5511~9
59	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01-2001
60	2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5700
61	3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진료	02-2002-8000
62	4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진료	02-737-0181
63	1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진료	02-2260-7114
64	2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진료	02-2270-0114
65	1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진료	02-490-2000
66	2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진료	02-437-5011
67	3	중랑구 서울의료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76-7000
총합	23개 자치구	67개소	외래 43개소 / 외래 및 입원 24개소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40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2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02-3410-2114	41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42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02-440-7000	43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4	성동구	성동군자의원*	02-499-7785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5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6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인암병원)*	02-1577-0083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7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8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9	송파구	경찰병원(아간 및 주말 미운영)*	02-3400-1124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50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51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2-1877-8875	52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53	양천구	홍익병원*	02-2600-0620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54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5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6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7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8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20	구로구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59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21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60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2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61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3	금천구	희명병원*	02-2219-7231	62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4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63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5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64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6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65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02-383-0129
27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66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8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7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9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8	종로구	서울직업자병원*	02-2002-8650
30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02-1577-3675	69	종로구	서울지구병원*	02-397-2018
31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70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32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02-966-1616	71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33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72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4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73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5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74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6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75	서초구	舊소방학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7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76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38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77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병원	
39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78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 검체채취 가능

* 출처 : 5.1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흡연자가 코로나19의 고위험군?

- 65세 이상 고령자
- 만성 기저질환자
- 고도비만자
- 임신부
- 투석환자 등

+

흡연자

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기존의 65세 이상 고령자, 만성기저질환자, 고도비만자, 임신부, 투석환자와 함께 **흡연자**를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코로나19가 흡연자에게 미치는 영향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인 흡연은,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감염 후 예후를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흡연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코로나19의 주 감염경로인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흡연시설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밀접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흡연부스 이용 자제하기

대중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흡연부스는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피하도록 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흡연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2 흡연시설을 이용한다면

- ☑ 흡연부스 내 바닥에 침 뱉지 않고 휴지에 싸서 버리기
- ☑ 지정된 휴지통에 담배꽂초 버리기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흡연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3 흡연시설 외의 장소라면

- ☑ 바닥에 침 뱉지 않고 담배 꽂초는 지정된 휴지통에 버리기

모든 장소에서의 침 뱉는 행위와 무단 꽂초투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NO!

안전한 흡연?

안전한 흡연이란 없습니다.

★ 마스크가 일상이 된 것처럼
'금연'도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금연시도가 어렵다면, 금연지원 서비스에 도움 요청하기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금연지원 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 이용 장소: 서울시 25개구 자치구 보건소
- 서비스 내용: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제공
- 비용: 전액 무료
- 신청절차: 보건소 금연클리닉 방문
- 문의: 02-120

병의원 금연치료

- 이용 장소: 금연치료 병의원
- 서비스 내용: 금연치료 및 상담
- 비용: 치료 완료시 무료
- 신청절차: 1577-1000(건강보험공단)

서울금연 지원센터 금연캠프

- 이용 장소: 서울성모병원 별관 10층
- 서비스 내용: 건강검진 및 금연캠프
- 비용: 전액무료(4박 5일)
- 신청절차: 02) 592-7538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여러분의 금연을 응원합니다

[출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금연학회 (2020.04), 코로나19 유행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금연운동협의회/대한금연학회 공동 성명서.
권해림. (2020.04.04). 코로나 고위험군에 흡연자 포함...당국 "중증이상 위험 14배".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47444>
신재우. (2020.04.07). 방역당국 "흡연자,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발견 위험 높아".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5039900017?section=search>
정종훈. (2020.04.06). "코로나와 흡연, 최악의 조합"...밀폐된 흡연부스 더 위험하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48126>
뉴스1. (2020.04.01).美질병센터"당뇨병·폐결핵·심혈관질환·흡연자, 코로나에 취약. 뉴스1.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1/100443022/1

 서울특별시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